

국가상징물을 응용한 텍스타일디자인 연구 - 태극문양을 중심으로 -

김 언 배
섬유디자인전공

A Study on Textile Design applied National Symbol - focus on the Táegŭk -

Kim, un - bae
College of Design, Major in Textile Design

1.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부는 최근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등 국가상징물을 이용한 자유로운 응용디자인을 허용하면서 공모전등을 통한 적극적인 장려와 지원을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우리의 국가 상징물에 대한 존엄성 유지와 관련한 폐쇄적이고 경직된 정책으로 활발한 디자인 개발은 물론 상품화가 근본적으로 전개되어 질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앞두고 국가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 개인이나 국가의 정체성은 상징과 이미지에 의하여 상당부분 담보된다.

200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세계에 국가이미지를 알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국가 상징물 디자인개발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며 따라서 다양한 작품제작 실험과 제품디자인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범위

우리나라 상징중의 가장 근본이 되는 태극과 태극사상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태극문양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작품을 개발한다.

국가상징물 중 이번 연구에서는 태극만을 연구범위로 제한하며 나라꽃 무궁화, 애국가 등의 국가상징물 관련 연구주제는 후속과제로 삼는다.

3. 국내외 연구동향 및 배경

정부에서 국가상징물을 소재로 하여 다양하고도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허용하고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주최의 제32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에서부터 특별주제부문을 신설하여 국가상징물을 이용한 문화상품 및 디자인을 공모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서 1998년 8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삼성플라자 1층 로비에서 전시 발표된 제일기획의 「태극활용 국가문화상품디자인·해외용 국가 홍보물 디자인·대통령 P·I디자인 (Design Korea Exhibition 1998) 등이 있었다. (부록 1참조)

Ⅲ. 본 론

1. 태극문양에 관한 일반적 고찰

가. 태극의 어원

태극(太極, the Great Absolute : the entity of the cosmos)은 우주만물이 생긴 근원이다. 음양은 상호간에 반발(反撥)하면서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양극개념의 통일이 태극이다. 하늘과 땅이 나뉘기 전에 우주 만물의 근원이요 본체인 태극의 상태에서 음양^{주1}(陰陽 ; the cosmic dual forces)이 생기고, 음양의 조화에서 오행^{주2}(五行 ; the five elements of the Chinese cosmogony, i.e metal, wood, water, fire, and earth)이 생겼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기는 이 태극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태극기라 부른다. 즉 붉은색의 양(陽)과 푸른색의 음(陰)이 서로 조화를 이룬 모양이다.^{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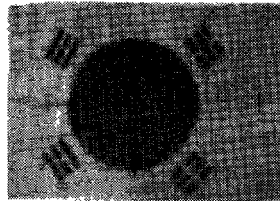


사진1) 가장 오래된 태극기 1882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박물관 소장

나. 태극의 신화

- 혼돈 (混沌 · 渾沌 : Chaos : nebulosity : confusion)
- 근원 (根源 : the ROOT : the Origin)
- 우주란 (宇宙卵 : cosmic Egg)

태극도형은 우주가 음양의 대립원리로 갈리기 이전의 원초적 상태를 표상한 것이다. 따라서, 태극의 신화적 배경은 모든 창조신화에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천지개벽 직전의 혼돈과 무정형의 상황이다.

제주 무가(巫歌) 초감제에서의 개벽상황이나 '규원사화(揆園史話)'^{주4}에서는 태초이전의 상태를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는 어둠과 혼돈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 신화의 거인 반고(盤古)^{주5}가 마치 달갈속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태극의 바탕이 된 이러한 혼돈과 무정형, 미분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화적 상황을 우주란(宇宙卵, cosmic Egg)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것은 우주 및 사물의 근원을 상징한다.^{주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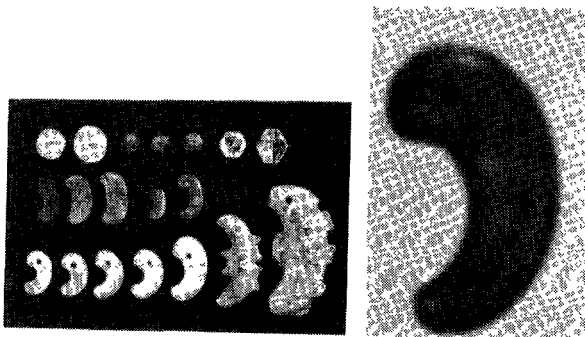
다. 태극의 원형

태극의 원형을 곱은옥(곡옥 曲玉)에서 찾고 태극을 왕권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는데 정연종^{주7}의 경우가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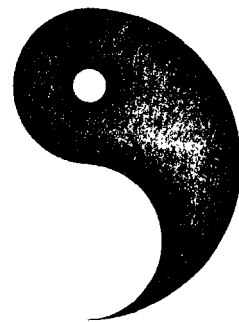
증 략

...곡옥의 형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신기하고 오묘한 생명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곡옥은 정자의 모양같기도 하고 수태된 태아의 모습같기도 하다. 분명 생명의 신비감이 감도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 곡옥 태극이 쌍으로 붙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양이 태극이다. 이 곡옥이 바로 태극의 원형이다. ...



(사진2) 곡옥



(사진3) 태극

것이 송유(宋儒)의 주렴계(周濂溪)의 태극도이다. 그에 의하면 만물생성의 과정은 태극 - 음양 - 오행 - 만물로 되어 있으며 태극에서 음양으로의 이행은 태극의 동정(動靜)에 의한 것이지만 음양안에는 역시 태극이 존재하고 있다. 음양의 기(氣)는 응고(凝固)하여 오행(五行)의 질(質)을 낳게 하고, 음양오행에 의하여 만물이 만들어지며 따라서 오행 및 만물안에도 태극이 존재한다.

역이나 태극은 음양에 선행하는 존재라 생각되고 있으나 그것은 기(氣)의 세계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송의 주자(朱子)에 이르면 태극은 이(理)라 해석되게 되었다.

이(理)라는 것은 그 존재가 관념적으로 파악되는 것이며 말하자면 법칙성이다. 이(理)의 세계는 기의 세계와 전혀 다르며 이는 기안에 항상 존재한다고 하나 그 성격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

기의 존재나 운동안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理)없이 기(氣)는 그 존재 조차도 불가능하다. 태극에는 그와 같은 성격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마. 태극문양 출토유물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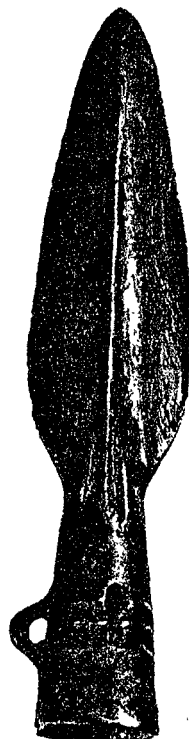
1) 알타이 지역

최초의 태극은 알타이지역에서 발굴되었으며 정연종은 환단고기 삼성기의 기록을 빌어 우리민족의 발원지로 보면서 우리문화의 시원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 태극유물은 태극이 창에 각인된 것이다. BC1500년청동기시대 에루니노 문화기시대의 것으로 평지 알타이 지역에서 출토된 것이다. 태극 양면에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세 개의 선이 입체로 돌려져 있다. (사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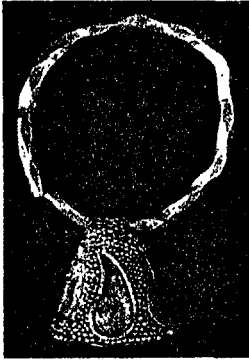
사진7)은 BC 800~600년, 초기 철기시대 알타이 마이미리안 문화시대의 유물이다. 원형고리에 삼각형 원뿔 형태를 매달고 그 몸체에 돌아가면서 금선을 바닥판에 붙여 만든 태극문양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사진 8,9) BC1세기경 낙랑 「대동강 석강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 교구이다. 이 허리띠 장식은 1마리의 어미용이 태극모양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자룡 6마리가 얹혀있다. 태극공간에 녹색이 선명한 비취옥이 박혀 있다.



태극문양이 새겨져 있는 창
BC 1500. 청동기 에루니노 시대
평지 알타이 출토

(사진6)



알타이 금귀걸이
BC 800-600, 초기철기 시대
마이미리안시대, 보이티겔 출토

(사진7)



누금기법을 사용한 금제띠고리 부분도

(사진8)



금제띠고리
BC 100, 석암리 9호 고분출토

(사진9)



태극형 금제장식
BC 500-400, 산지 알타이, 보로탈출토

(사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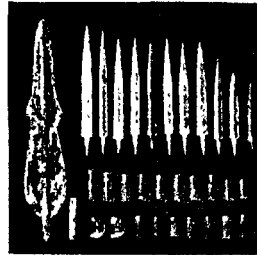
2) 한반도 지역

(가) 부여 송국리 석관묘와 창원 신촌리 유적지의 곡옥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5세기로 추정되는 「부여 송국리 석관묘」와 「창원 신촌리」 유적지등에서 최초의 곡옥이 출토된다. 송국리 곡옥은 비파형 동검과 함께 발굴된 것으로 태극의 아래위가 직선으로 잘린 것이 쌍으로 출토되었다.



(사진11)



부여 송국리 석관묘 출토, BC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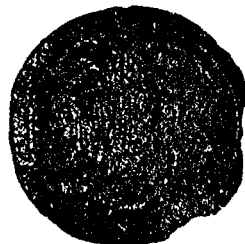
(사진12)

(나) 광주 직할시 신창동 유적지의 삼태극

최초의 삼태극 유물은 1996년 7월 광주직할시 신창동 유적에서 발굴된 것으로, 지금까지 보여진 태극유물이 청동이나 황금, 비취옥등으로 만들어졌다면 광주 신창동 태극 목제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원전 1세기 유물로 추정된다.



(사진13)



광주시 신창동 유적지 출토
BC 100, 목제 삼태극유물

(다) 감은사지 기대석의 태극도형 - 최초의 음양태극

음양구조가 완성된 최초의 태극은 신라시대의 감은사지 기대석(基臺石)에서 발견되었다. 감은사지는 1960년과 1979 ~ 80년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이탑식 가람배치로 남북보다 동서 회랑의 길이가 길며, 양탑의 중앙부 뒷면에 앞면 5칸, 옆면3칸의 금당터가 확인되었다. 또한 금당의 바닥구조가 H자형의 받침석과 보를 돌다리처럼 만들고 그위에 직4각형의 석재유구(石材遺構)를 동서방향으로 깔아 마치 우물모양으로 된 것은 삼국유사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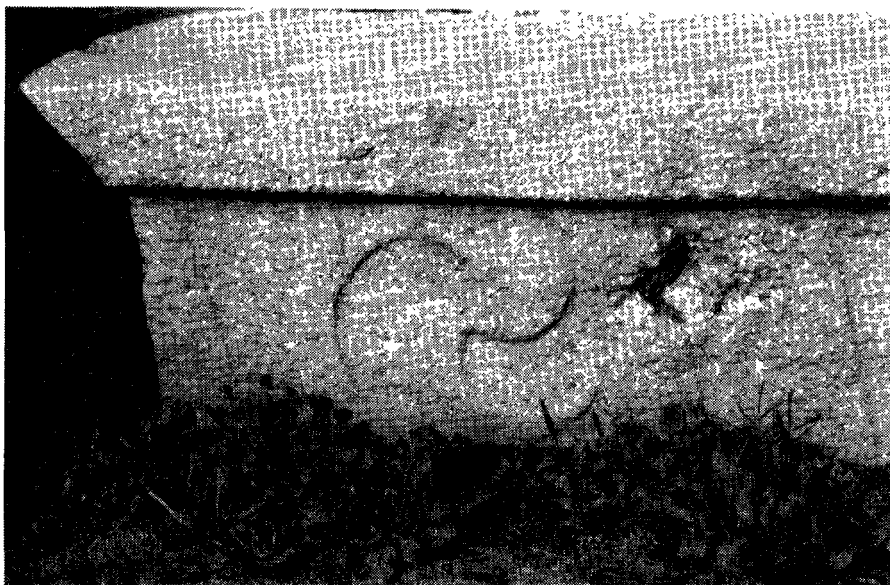
감은사 창건내력은 삼국유사 권2 만파식적 감은사 사중기(三國遺事 卷二 萬波息笛 感恩寺 寺中記)에 기록되어 있다.

‘문무왕이 왜병을 진압하려고 하여 이 절 감은사를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시어 바다의 용(海龍)이 되었다. 그 아들 신문왕이 즉위하여 개요 2년에 절을 준공하였는데, 금당 계단밑의 동쪽으로 한 구멍을 냈으니 그것은 용이 들어와 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무왕의 유조(遺詔)를 받들어 유해를 묻은곳을 대왕암이라하고 절은 감은사라 이름하고, 그뒤 용이 나타난 곳을 이견대(利見臺)라 하였다.’

감은사 창건연대 682년(신문왕 2년)에 비하여 송나라 주렴계의 태극도설은 우리나라 고려 문종 24년(서기1070년, 송나라 신종초)경으로 388여년 후의 일로서 태극문양의 기원이 우리나라라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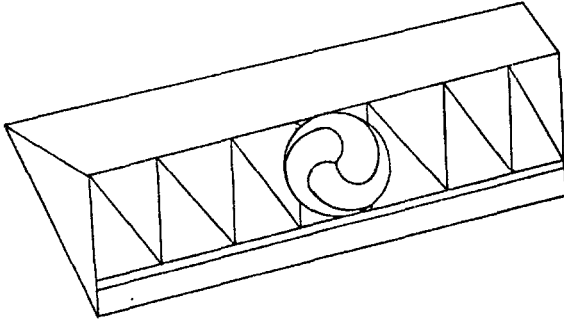
감은사지 기단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연속 삼각형 무늬 가운데 음과 양이 함께 물려 회전하는 태극문양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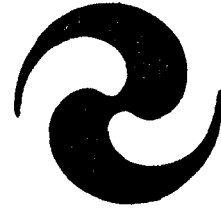
(사진14) 경주 감은사지 기대석

1998년 촬영 김언배

감은사지 기대석의 태극도형(感恩寺址 基臺石 太極圖形)



- 「올바른 태극기 해설」 49쪽



태극 감은사지 기단 받
건 석재

- 「한국문화상징사전」

(라) 허재 석관의 태극도 (許載石棺의 太極圖)

서기 1144년 되는 고려 인종 갑자년에 죽은 고려의 호부상서 검교태위 허재(戶部尙書 檢校太尉 許載)의 석관(石棺) 뚜껑 석판 중앙에 새겨져 있는 태극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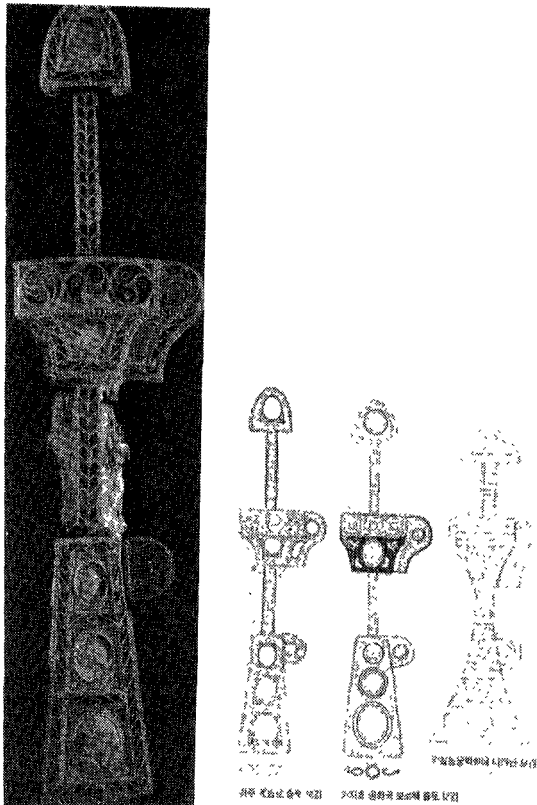
허재(許載)의 석관천판(石棺天板)에 새긴 태극도형 (太極圖形)

*이 太極은 한쌍의 鳳凰을 줄무늬로 하여 둘러싸게 한 조각 모양이다.

(사진15)

(마) 보물 제632호 장식보검의 삼태극

통일신라시대의 황금보검(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출토, 신라 5-6세기)은 신라 귀족사회에 서역풍 문물이 유행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도 하거니와 길이 36cm의 이 칼에는 세 개의 원속에 세 개의 삼태극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 칼자루의 바깥부분에는 연속 태극무늬가 금사로 장식되어있다. 둥근 홍마노(紅瑪瑙 sardonyx)¹⁰를 감입(嵌入)하였고 그 사이에는 누금기법으로 금짜라기를 채워 넣었다. 삼태극은 각 태극안에 둥근 눈이 그려져 있고 그 꼬리가 삼태극과 함께 돌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순환하는 생명(정자운동)의 형상화처럼 보인다. 모든 생명체에는 눈이 있다. 곡옥을 금관에 주렁주렁 매달 수 있었던 것도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¹¹ 이 칼의 모양은 그리스, 로마, 이집트, 서아시아에서 유행하던 형식이며 특히 5세기 훈족의 아틸라 왕때 성행하였다고 한다.¹²



(사진16)

- 보검 제 632호 ·
- 장식보검
- 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
- 신라 5 - 6세기
- 길이 36cm

이 보검에 새겨진 삼태극도형에 관한 임영주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특히 이 보검에 새겨진 삼태극 도형을 분석해 볼 때 매우 심오한 우주 철학적 관념을 느낄수 있는데, 그 구성은 고굴 고분벽화의 천상성진도(天上星辰圖)에서 찾아볼수 있고 형태와 의장양식에서도 이채로운 유물이라 하겠다.

이보검의 중앙에 칼 손잡이 장식판은 장방형의 구간으로 짜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내부에는 원(圓)이 3개 나란히 구성되어 그 원속에는 각기 3파형(三波形)을 이룬, 즉 3태극 무늬가 형성되어 있는 모양을 보여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3태극의 파형무늬 속에 작은 원으로 이루어진 성진(星辰)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아마도 삼각좌(三角座)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삼각좌는 북쪽하늘에 있는 성좌이며 12월 중순의 저녁 하늘 한 가운데 볼 수 있는 와상성운(渦狀星雲 : 소용돌이 모양으로 빙빙도는 형상의 별과

구름)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이별은 특별한 의미를 주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이것은 우리 상고시대에 국토의 신으로 여겼던 삼신(三神)을 상징하는 것인지 모른다.

이 삼신은 삼신상제(三神上帝)라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신은 일찍부터 우리선조들이 아이를 점지해주는 신령으로 믿어왔던 것이다.^{주13}

3)일본

고대 한일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진17의 곡옥은 10%정도의 은이 섞인 금으로 만든 금제 곡옥이다.

머리부분은 튀어나온 가는 띠줄로 장식했다. 이곡옥은 가쓰라기 왕조시대의 것으로 신라시대 왕족의 목걸이 장식품으로 출토되는 금제곡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니이자와 천총」 무덤이나 「하이바라」 등에서 비취곡옥이 대량 발굴되었다.

사진 18)의 모자태극유물은 태극이 새끼를 잉태하고 있는 듯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역시 같은 모양의 삼국시대 유물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진19)



금제곡옥
가쓰라기 왕조시대
출처 / 김달수, 일본속의 한국문화
유적을 찾아서

(사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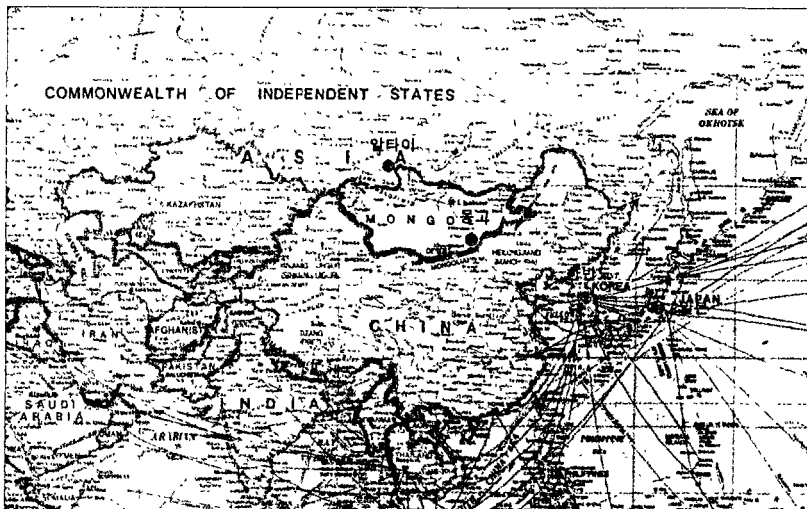
모자곡옥
모끼노시마 출토

(사진 18)



모자곡옥
AD 500-600 삼국시대

(사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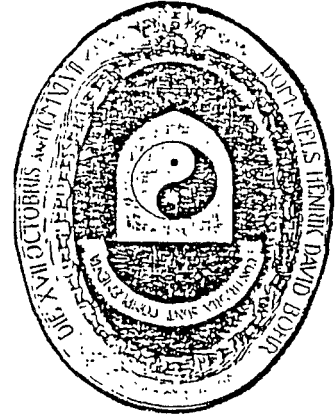
(사진 20)

태극유물분포지역

바. 태극문양과 한국인의 생활 미학

한국인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미학중의 하나는 조화와 원융의 진리이다. 이와 같은 전통사상은 생활속에 깊이 스며있는 태극문양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덴마크의 닐스보어¹⁴가 1947년 과학적 업적의 공로로 귀족작위를 받을 때 스스로 만든 문장인 음양상징 태극도와 「대립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라는 문구에서도 보여지듯이 태극사상의 본질은 서로 다른 반대요소의 상호보완으로 완성되는 상생의 미학이다. 닐스보어는 이것으로 신과학 운동의 핵심을 설명하였다.



(사진 21)

앵플레랑스(intolerance)가 서로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하게 하시오 (respectez, et faites respecter).” 의 순환 법칙에 근거하여 결과되는 톨레랑스 (tolerance)의 미학이다.

‘톨레랑스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톨레랑스는 극단주의를 외면하며, 비타협보다 양보를, 처벌이나 축출보다 설득과 포용을, 홀로서기보다 연대를 지지하며, 힘의 투쟁보다 대화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강제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합니다.’¹⁵ - 홍세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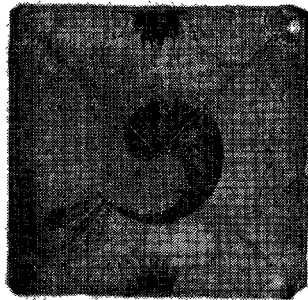
한국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태극의정신과 더불어 살아왔다.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므로서 서로 다른 내가 또한 인정받고 그리하여 상보상생하는 공존의 철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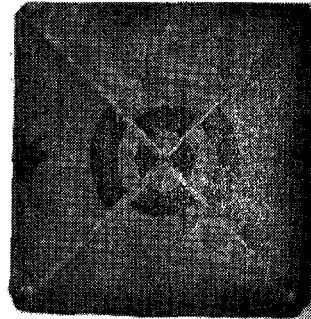
1) 이태극 (二太極 · TAEGUK)



1 창경궁 명정전 돌계단
Stone stairs at Myongjong
in Ch'anggyŏng Palace



2 편지집 앞부분 (덕성여대 박물관 소장)
The front of a letter case (Toksong
Women's Univ. Museum)



3 편지집 뒷부분
The back of a letter case



4 장도노리개



5 동도사의 철문



6 은하계의
태극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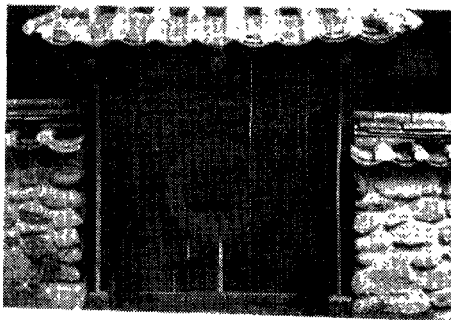
7 수분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Embroidery pattern (Onyang Folk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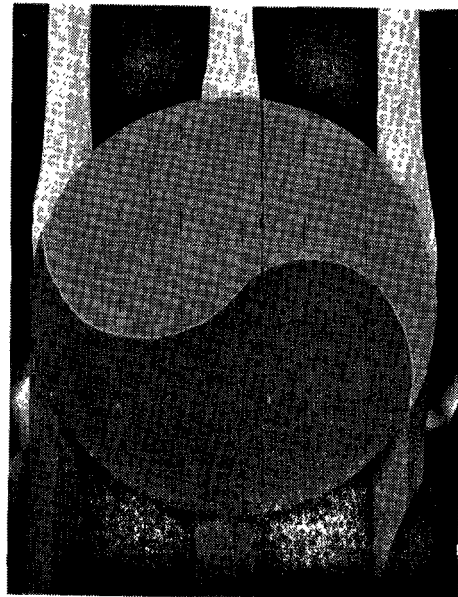
10 서울 북한산 유도암
유도문의 태극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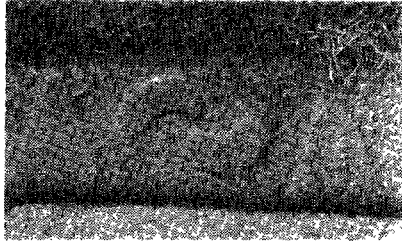
11 전북 장수군 장
수 향교의 태극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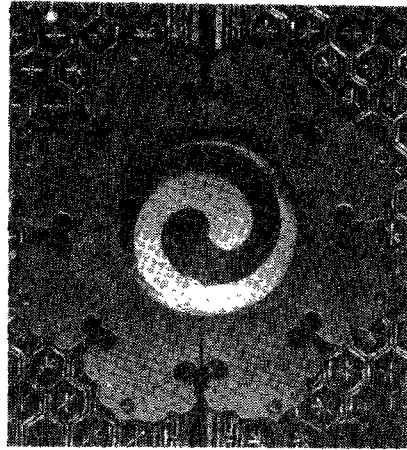
8 소수서원 (사적 55호)내 안향사당의 대문, 경북 순흥
Gate at Sosu Sŏwŏn, one of Korea's oldest
schools, in sunhŭng, kyong sangbuk do
(Historical Monument No.55)



9 강화도 고려궁터 (사적 133호)
From a Koryŏ Dynasty palace site on
Kanghwa island (Historical Monument No.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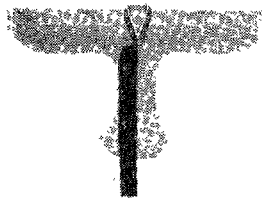


12 감은사지 석재 (사적 31호, 682년)
Stonework at the site of Gamun
Temple in Kyung - ju
(Historical Monument No.31 built in A. D 682)



13 니진 이승농의 장석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
Ornament on a chest made in mother - of
- pearl (Ewha Women's Univ. Museum)

* 14. - 24 생활속의 태극문양 응용사례



14 세고리



15 고무신



16 남매철개



17 씨름



18 코려방울



19 팽상



20 가단



21 옷관



22 바지



23 천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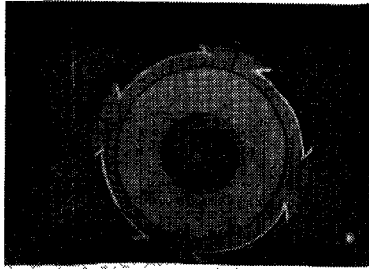


24 태극비녀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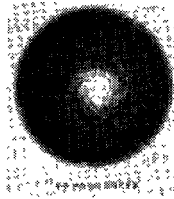
2) 삼태극 (三太極 · SAM TAE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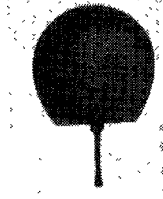
1 대문에 그려진 삼태극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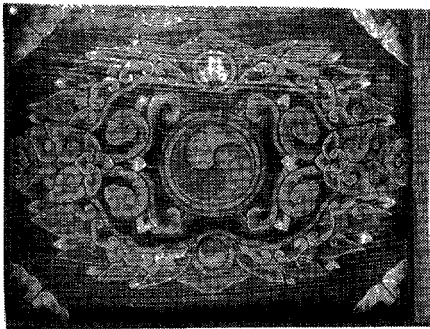
4 쥐고 (座鼓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Drum (Onyang Folk Museum)



5 우주 은하계의 삼태극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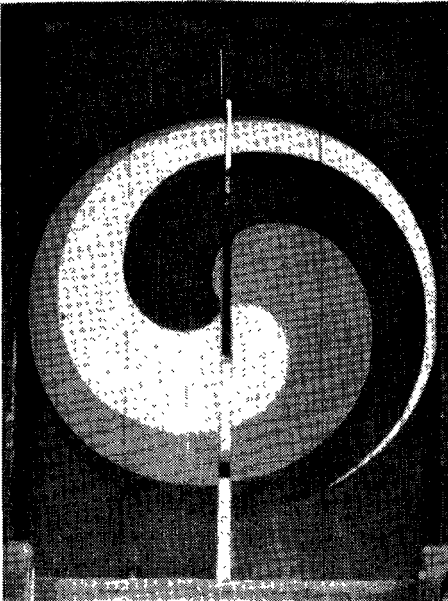
8 삼태극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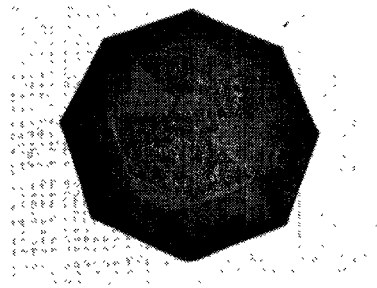
2 동도사 (보물 144호)관음전 방문리의 아랫부분, 경남 양산군 하북면 Lower Part of a door in Iwanum - jon at tong do temple (National Treasure No.144)



6 창경궁 돌계단 Stone stairs in Chang - kyung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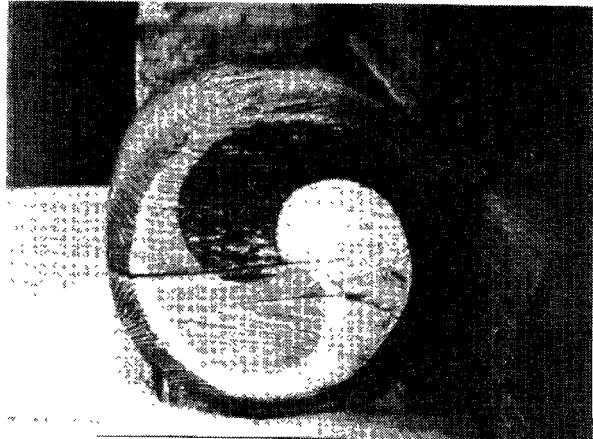
3 도산서원 대문, 경북 안동 Gate of Tosan Sowon in Andong, kyongsangbuk -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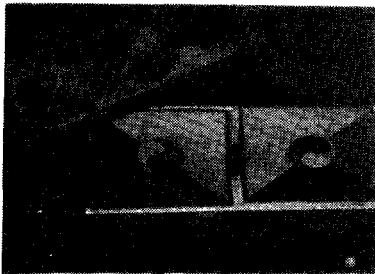
7 반짓고리 (속명여대 박물관 소장) Work basket (Sungmyong women's Univ museum)



9 서오릉 (사적198호) 돌계단, 경기도 고양군
Stone stars at Sŏo - nŭng, a royal to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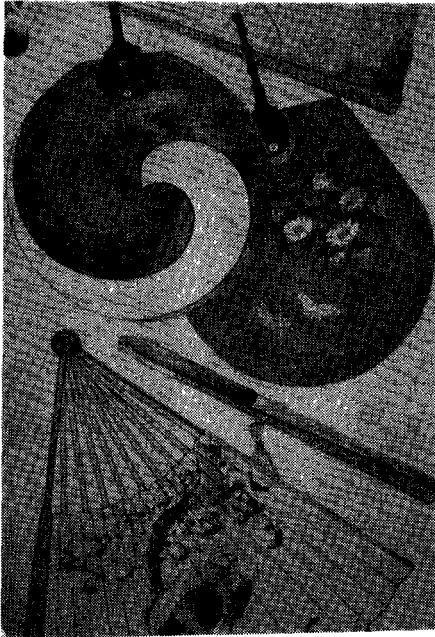


10 도산서원 상덕사 심방목
Crossbeam at Sangdoksa, Tosan Sŏwŏ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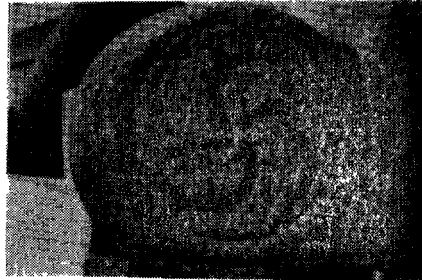


11 나무상자 (덕성여대 박물관 소장)
Wooden box (Tŏksŏng Women's Univ. 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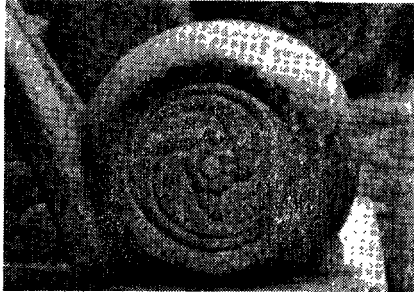
3) 사태극 (四太極 · SA-TAEG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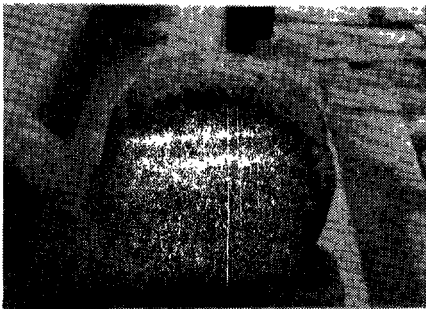
1 비선도 (병풍,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Folding Screen (Onyang Folk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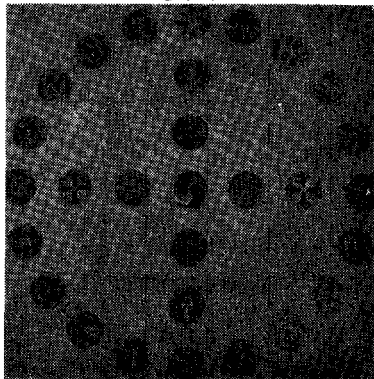
2 경복궁 근정전 돌계단
Stone Stairs at Kunjongon in Gyeongbok Pa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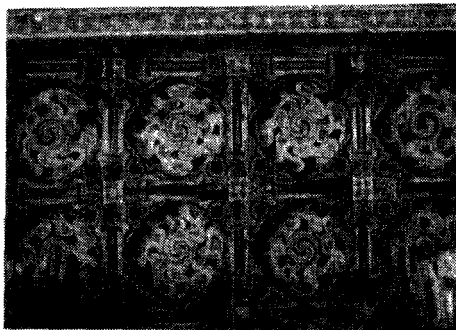
3 창경궁 돌계단 (비원)
Stone Stairs in Changgyeong Palace (Secret Ga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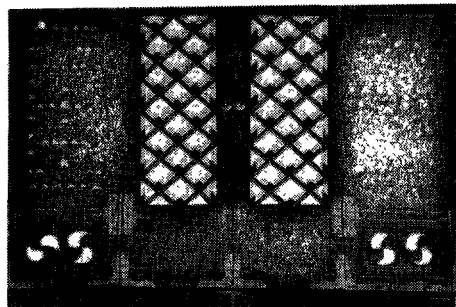
4 종묘돌계단
Stone Stairs in Jongmyo, the Choson Dynasty Royal Shrine



5 윗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Game board (National Folk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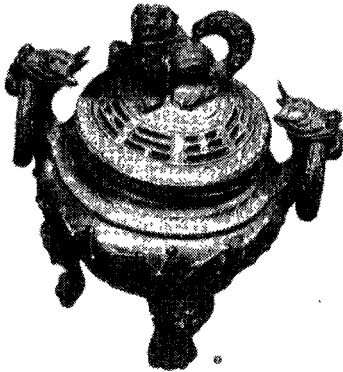


6 풍도사 대웅전의 천정
Ceiling of Taegungjeon at Tongdo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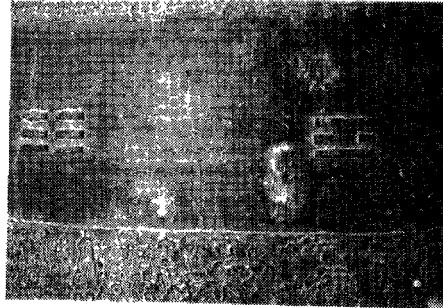


7 사인교 (四人轎,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Four - passenger sedan chair conyang Folk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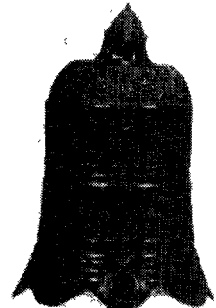
4) 기타·팔괘 (其他·八卦 : OTHER T'AEGU'K · THE EIGHT TRI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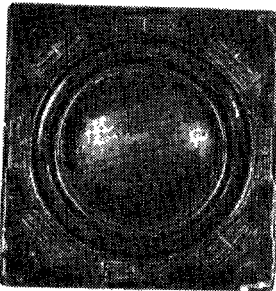
1 청동향로(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Bronze censer (Onyang Folk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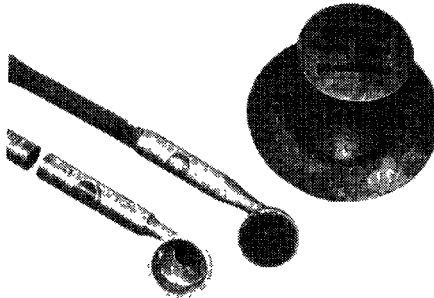
2 통도사 범종
The bell at Tongdo Te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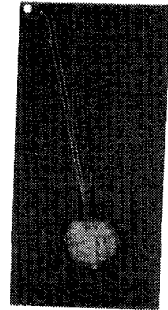
3 범종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Buddhist bell (Onyang Folk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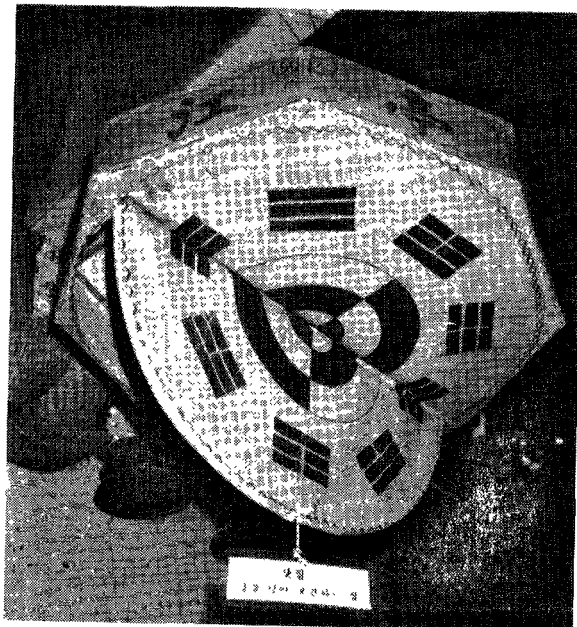
4 팔괘연(八卦硯,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Water dropper with trigrams
(Onyang Folk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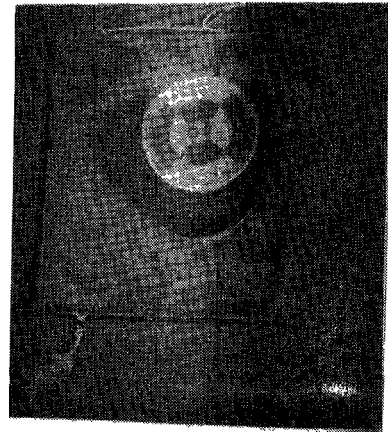
5 담뱃대와 담배동검이 (경희대 박물관 소장)
Pipe bowls and tobacco - case hanger
(kyōnghū University Museum)



6 가마에 다는 인장석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Fittings fro a palangum
(Onyang Folk Museum)



7 갓집 Hat box
(경주 산내면 국민관광수련원 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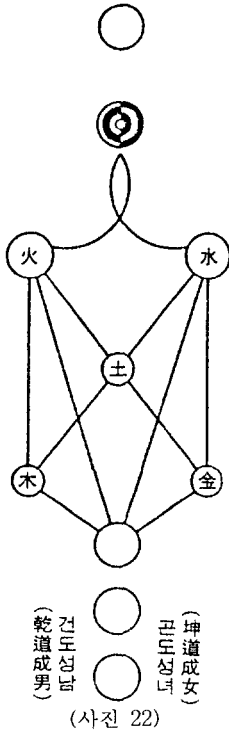
8 갓집 (온양 민속박물관 소장)
Hatbox (Onyang Folk Museum)

사. 태극문양과 천부경

태극도설의 태극도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에 의하여 판명되었다.

중국 태극설의 시작은 주역계사에 있었으나 태극도형이 처음 나온 것은 송(宋)나라 신종(神宗) 임금 희령(熙寧)년 간에 주렴계(周濂溪)가 발표(發表)한 태극도설(太極圖說)속에 있는 태극도형(太極圖形)과 역시 송나라때 조휘겸(趙撝謙)이 전한 고태극도(古太極圖)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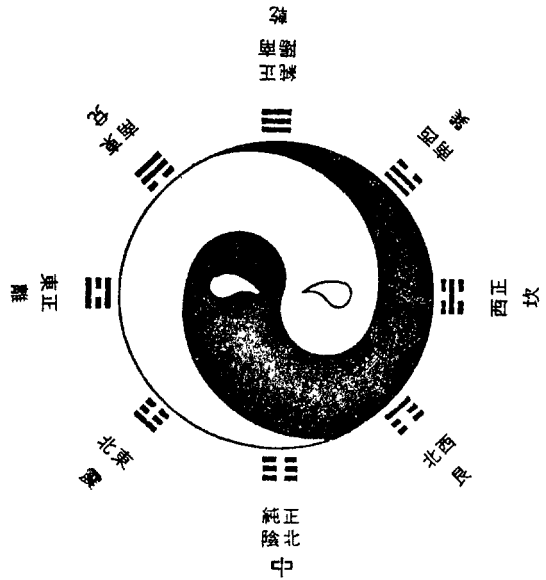
주렴계(周濂溪)의 태극도(太極圖)



(사진 22)

송나라 주렴계의 태극도설은 신종(神宗) 임금초가 되므로 고려 문종(文宗)24년경이 되고 서기로는 1070년이 된다. 따라서 감은사 기대석의 태극(682년)에 비하면 388년이 늦고 조중전의 고태극도보다 허재 석관의 태극도형이 이백년이상이나 앞서고 있으므로 태극이 중국에서 왔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것이 중국등 세계로 전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근거는 「천부경」 「삼일신고」에서 찾을 수 있다.¹⁶

고태극도(古太極圖)



(사진 23)

천지자연지도(天地自然之圖)



(사진24)

천부경은 우주만물과 인간의 조화원리를 담고 있는 조화경이며, 삼일신고는 366자로 된 경전으로 하느님의 진리법칙을 가르치는 교화경이다.

참전계경도 366자로된 말씀으로 인간완성을 위한 수신서로서 치화경이다.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사상의 근본이 바로 이 3경안에 모두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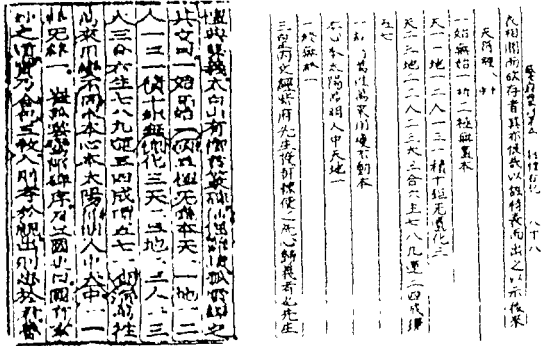
천부경(天符經)을 알지 못하고는 동양사상에 접근할 수 없다.

인류광명대도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천부경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경전으로 81자로 되어 있으며 그중 31자가 숫자이다.

천부경은 조화의 진리를 수리적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시대에 구전되어 오던 것이 배달국시대에 녹도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하며 단군 조선때에는 이 말씀을 널리 가르쳐 홍익인간을 구현했다.

신라시대의 고승 최치원이 천부경이 새겨진 비문을 발견한 후 한문으로 옮겨 세상에 전하면서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리 역사의 시원과 함께 태어난 천부경이 전해진 경로를 보면 최치원이 묘향산 석벽에 새겨놓은 것을 계연수가 탁본해서 전한 석벽본과 최치원의 저서인 「향량비문」 중 단전요의에 기록된 문자본 두가지가 있다.^{주17}



최치원의 저서 단전요의에 수록된 천부경원본

(사진 25)

한단고기 소도경전본훈의 천부경 원본

(사진 26)

왜정(倭政)때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발행한 「정신철학통편」의 저자인 서우 전병훈(曙宇 全秉薰)은 「천부경」 원문을 신고

‘동방 한국(東韓)에 신성한 단군 「천부경」을 주해하노라 동방의 명현 최치원 선생이 말하기를 「천부경」 81자는 신지(神誌)의 전자(篆字)로 된 것이다’

라고 하고 최치원이 이 「천부경」을 묘향산에 새겨두었다고 하였다.



(사진 27)

· 대종교 본당에 걸려 있는 천부경
· 여기에 수록한 천부경 81자는 이흥제가 단기 4322년에 다시 적어 옮긴 것이다
· 천부경원본 원목판에 한자로 천부경을 다시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때 고승 최치원선생이 석벽에 새겨 놓았다고 전하는 천부경 원본으로 추정된다
· 계연수가 묘향산에서 탁본하여 대종교 본당으로 보내온 천부경 원본은 6 25 선관과 독립운동, 임시정부, 중국 망명생활등 민족의 수난과정에서 분실되고 지금은 없다
· 그러나 통일이 되면 묘향산 사내위 석벽에 새겨진 천부경 고락을 찾아 민족의 정기를 널리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 뒤 왜정초기인 병진(丙辰, 1916)년 윤초 계연수(雲樵 杆延壽)가 묘향산에 약초캐러들어갔다가 암벽에 새겨놓은 최치원이 천부경 81자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 내력을 정훈모의 단군교에 보냈다.

내가 일찌기 스승에게서 들으니 동방의 거칠은 땅을 개척하신 할아버지 단군님은 신인

(神人)이신지라 천부삼인(天符三印)을 잡으시고,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시사 그 덕화가 크게 행해진지 이미 4천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두움에 빠져서 이 삼인(三印)이 어떠한 것인지 또는 어떠한 보물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가 이 「천부경」이 곧 단군께서 교화를 베푸신 글인데 오히려 이제야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재앙이 변화하여 길(吉)한 상서(祥瑞)가 되고, 어질지 못한 이가 변화하여 착한 이가 됩니다.

이같이 오랫동안 도를 통하면 자손이 번창하고 장수(長壽)함과 부자됨이 계속되어 반드시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이 경(經)한권을 가지면 가히 재앙을 면하리라 하셨으므로 제가 이 경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구하려 해도 얻지 못하였더니 정성껏 성품을 단련하고 약케는 것을 업으로 삼아 명산에 구름과 놀기를 10여년동안 하다가 지난 가을에 태백산(太白山) : 에 들어가서 사람이 잘다니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이르러 시냇물 돌벽에 옛날에 무엇을 새겨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손으로 바위에 긴 이끼를 쓸고 보니 글자획이 분명한 「천부경」이 나타났습니다.

두눈이 문득 밝아오기에 질하고 꿰어 앉아 공경히 읽으니 한편으로는 단군 천조(檀君天祖)의 경문임에 기쁘고 한편으로는 고운(孤雲)선생의 기적이 있으므로 기뻐했습니다. 이경이 마음속에 충만한지라 내 스승이 허황한 말씀은 하지 않았음을 비로소 깨닫고 백보마다 돌을 쌓아 그 길을 잊지 않게 해 두고 돌아와서 종이와 먹을 가지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갔으나 전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로 헤매다가 산신령에게 사흘밤을 빌어 비로소 찾으니 이때가 9월 9일 이었습니다. 겨우 한별을 박고 보니 몹시 흐려서 다시 박으려고 하였으나 문득 안개 구름이 일어나서 그만 산사(山舍)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풀어보았으나 요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젊어서 배운 것이 짧고 늙어 총명함이 흐려져 연구해 낼 길이 없어 다만 입으로 읽기만 하였는데 마침 서울에서 온 사람이 말하기를 서울에 단군교가 있다 하기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기뻐서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하고 봄이 되었습니다.

노상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을 만나 박은 「천부경」을 드리오니 이 글 뜻을 잘 풀어서 중생을 가르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교운(敎運)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오니 귀교의 경사외다.

또 들으니 단군때에 신지(神誌)의 고문자(古文字)가 고려때 전하여 졌다하니 이것을 널리 구하여 만일 얻으면 다행이요 얻지 못하면 보내지 못할지라도 신용이 없다 하지 마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심으로 수도하실 것을 빌면서
정사(丁巳)년 정월 초 열흘날
향산유객 계연수 재배 (香山遊客桂延壽 再拜)
단군교당 도하 (檀君敎堂道下)

계연수는 1916년 태백산(묘향산)에서 천부경을 발견해 이듬해인 1917년 단군교당으로 탁본을 보냈으며 천부경을 입수한 원효정은 계연수가 1917년 영변의 백산에서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광욱 논문 : 「천부경 전래에 대한 고찰」)

삼국유사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하느님 환인(桓因)에게 아드님 환웅(桓雄)이 있어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그리워 하시거늘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그 뜻을 아시고 삼위태백(三危太白 白頭 天山)을 태려다 보시매 가히 홍익안간 할만한 곳이라 하시고 천부인삼개(天符印三箇)를 주시며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다.

이에 환웅께서 천중(天衆)3천명을 거느리시고 백두천산 꼭대기 신단수(神檀樹)아래로 하강하시매 천하의 백성들이 신시(神市)라 이르니 이분이 환웅천왕이시다...중략」

(古記云 昔有桓因謂帝 有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三國遺事 紀異卷第一古朝鮮王 儉朝鮮)

천부인삼개는 하늘 을 상징한 ○과 땅을 상징한□과 사람을 상징한△을 말하는 것이고 천부삼인(天符三印)이라고 말할때는 천부경을 뜻하는 것이 된다. 천부경은 천. 지. 인 (天.地. 人. ·)이 생성, 전개, 되돌아가 (·· 終 無 終一)는 원리를 숫자로 설파한 하느님의 진리이다.

천부경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이 가지고 백두천산(白頭天山)으로 내려오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주18}

一	始	無	始	一	析	三	極	無
盡	本	天	一	一	地	一	二	人
一	三	一	積	十	鉅	無	櫃	化
三	天	二	三	地	二	三	人	二
三	大	三	合	六	生	七	八	九
運	三	四	成	環	五	七	一	妙
衍	萬	往	萬	來	用	變	不	動
本	本	心	本	太	陽	昂	明	人
中	天	地	一	一	終	無	終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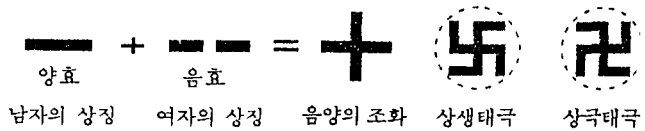
一始無始一一析三極無盡本
 일시무시일 일석삼극무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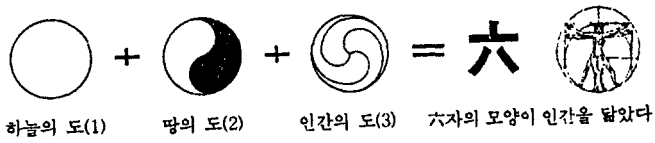
天一一地一二人一三
 천일일지일이인일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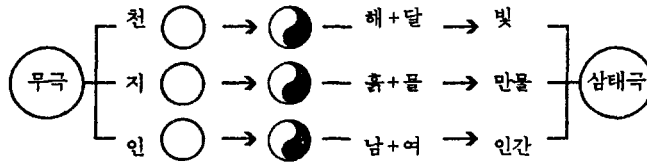
一積十鉅無櫃化三
 일적십거무궤화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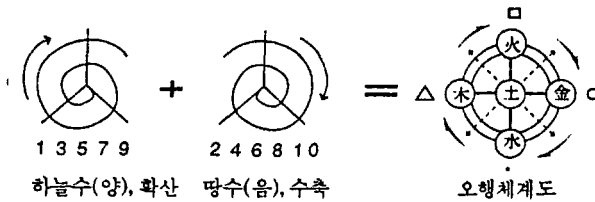
天二三地二三人二三
천이삼지이삼인이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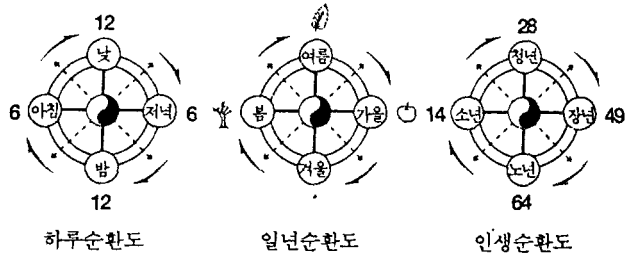
大三合六生七八九
대삼합육생칠팔구



運三四成環五七
운삼사성환오칠



一妙衍萬往萬來用變不動本
일묘연만왕만래 용변부동본



本心本太陽昂明人中
본심본태양앙명인중

「하느님은 그 위에 더 없는 으뜸자리에 계시나니,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한 하느님을 만드시고 수 없는 누리를 주관하시어 만물을 만드심에 실오라기, 티끌 하나 빠뜨리지 않으시니, 밝고 밝으시어 신령하고 신령하시어, 감히 이름지어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느님의 음성과 기운을 원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몸소 나타내시니, 스스로의 본성으로부터 그 씨알을 구하라. 너의 영혼이 있는 머릿골 위에 이미 내려와 계시느니라」

天地一一終無終一
천지일일종무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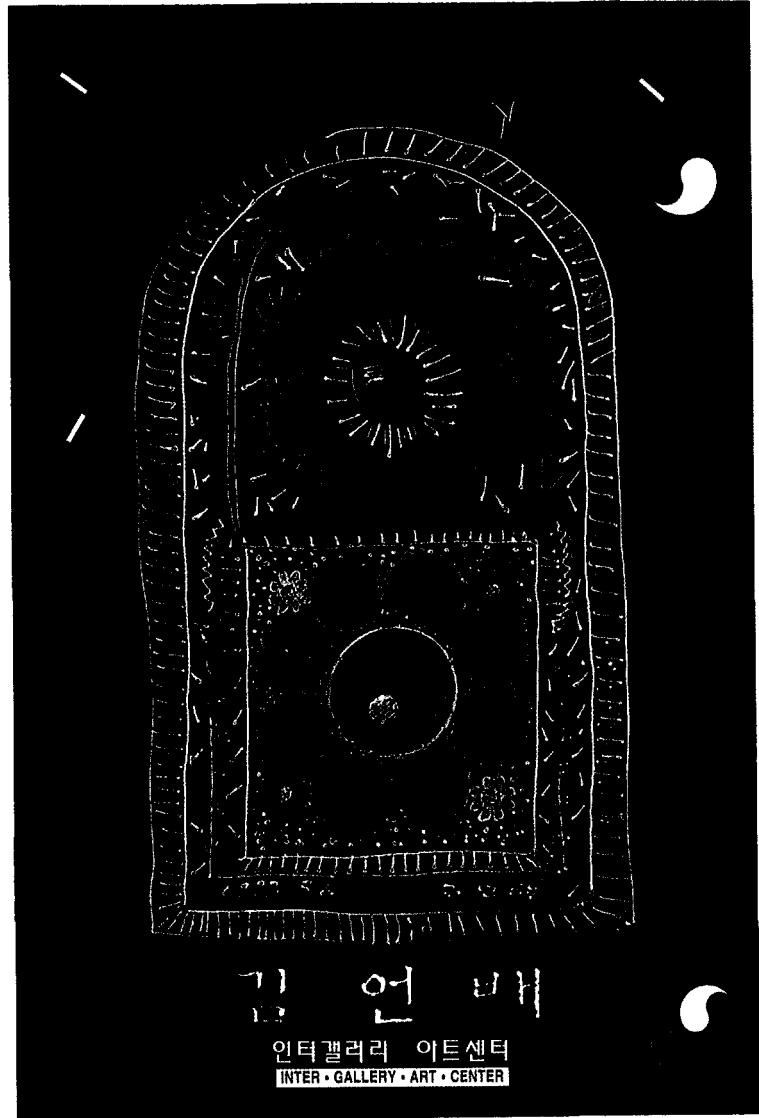
삼태극으로 조화세상을 펼치지만 다시 무극으로 윤회상을 만든다

2. 태극문양을 응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작품제작

우주를 하늘, 땅, 지옥의 세 영역으로 나눈 것이 서양의 코스몰로지(COSMOLOGY)이다.

제일 높은 하늘의 세계, 그 중간인 땅의 세계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지하의 세계 - 이렇게 해서 상, 중, 하의 수직공간과 그 축으로 우주가 형성된다. 그러나 한국의 코스몰로지는 태극이나 삼태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 지, 인의 세 층으로 구성된다. 이 우주의 체계는 무수한 소우주를 형성하고 그것들은 다같은 상동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른바 동양의 정신을 가장 오랫동안 지탱해온 음양사상이다.^{주19}

태극을 가장 잘 구르는 수레바퀴로 본 이 어령은 88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굴렁쇠를 굴리는 어린이를 등장시켜 세계인에게 조화의 화두를 제시하였다. 20세기말새로운 천년을 앞둔 지구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이념은 바로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조화의 미래」일 것이다. 조화의 상징인 태극문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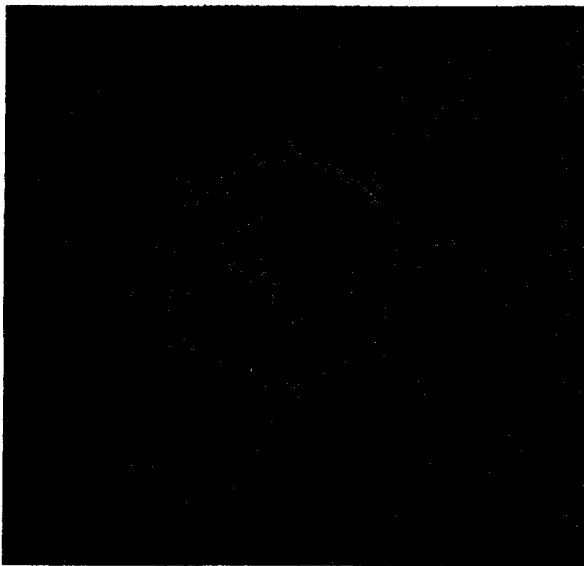
- 작품1/개벽
- PETPILLING FABRIC
 - DISPERSE DYES
 - DISCHARGE & RESIST PRINT
 - HAND PAINTING
 - BLACK PADDING
- 110×200

주제로 섬유작품을 제작하였고 소재는 최근 조달청에서도 태극기 소재를 기존의 면중심에서 폴리에스테르로 제작하기로 하였듯이 자연환경에서 내구성이 강한 폴리에스테르 감량 직물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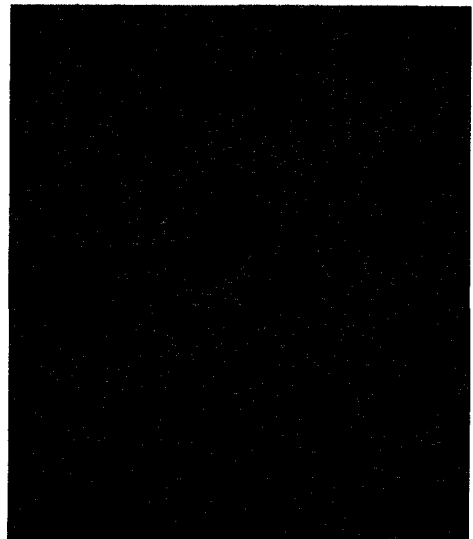
염료는 고압분산염료, 호료는 인달카(Indalka) 및 CMC를 그리고 발염제는 염화석(SnCl₂)을 사용하였으며 Black Padding작업에는 발염제를 증량하였다.

염착은 고온고압증열 염착방식(HTS & HPS System)으로 하였으며 배경처리는 크게 둘로 나뉘어 방발날염 및 수묘염의 혼합표현위에 Black Padding처리한 것과 분무염(Spray dyeing)과 소금염(Salt dyeing)을 복합적으로 표현한 것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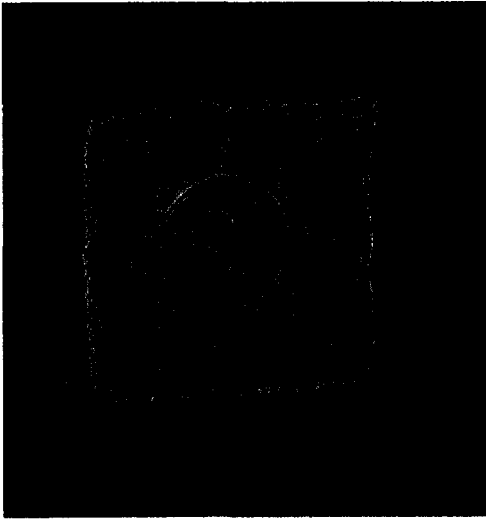
이 작품들은 1997년 6월 3일(화)부터 6월 10(화)까지 서울 신촌 소재 인터갤러리 아트센터에 초대되어 개인전 형식으로 발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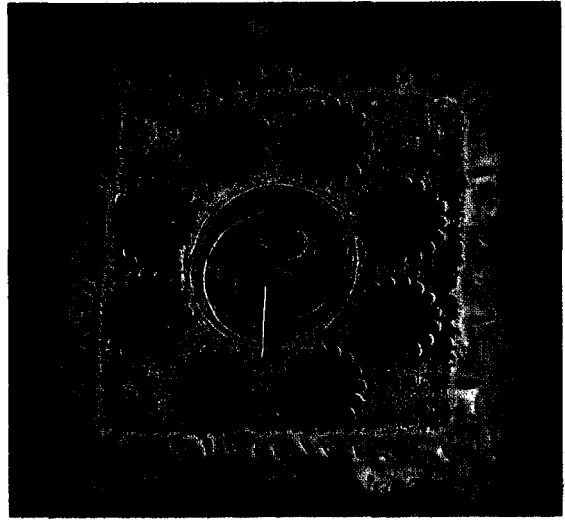
작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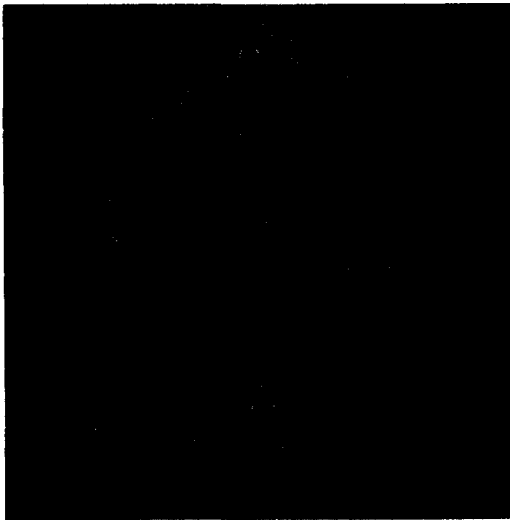
작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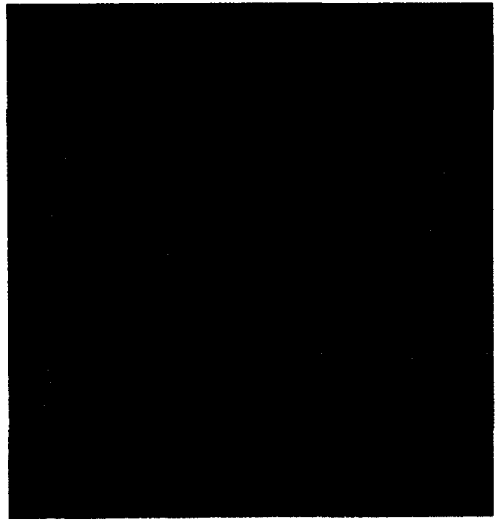
작품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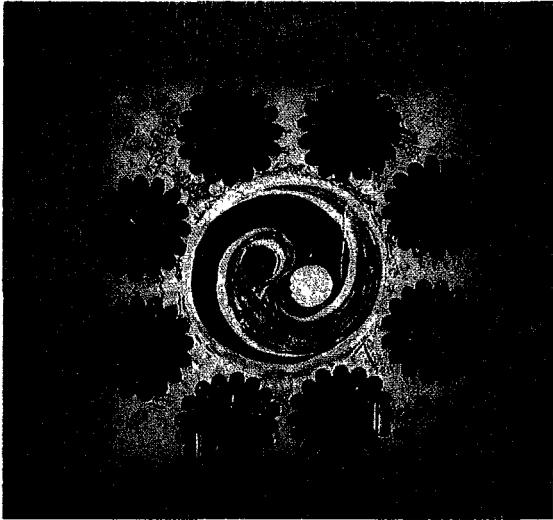
작품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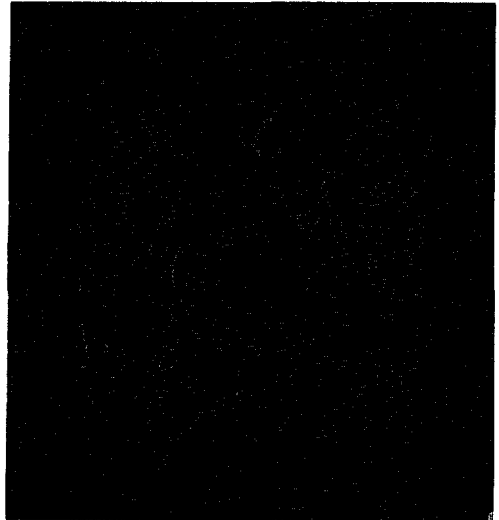
작품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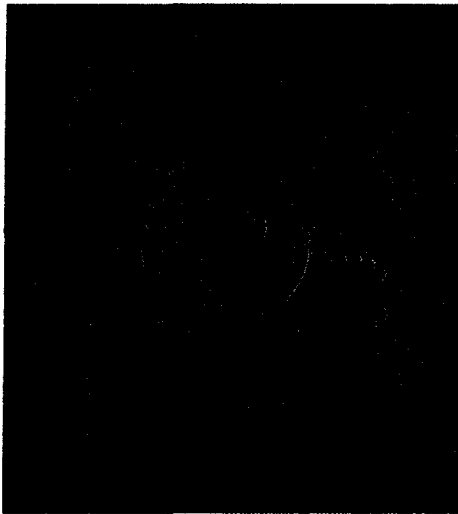
작품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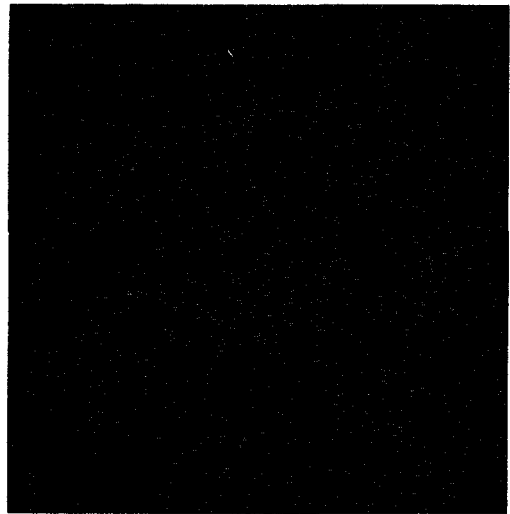
작품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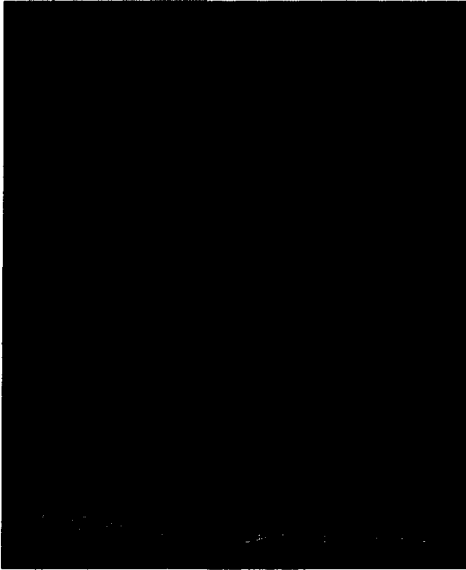
작품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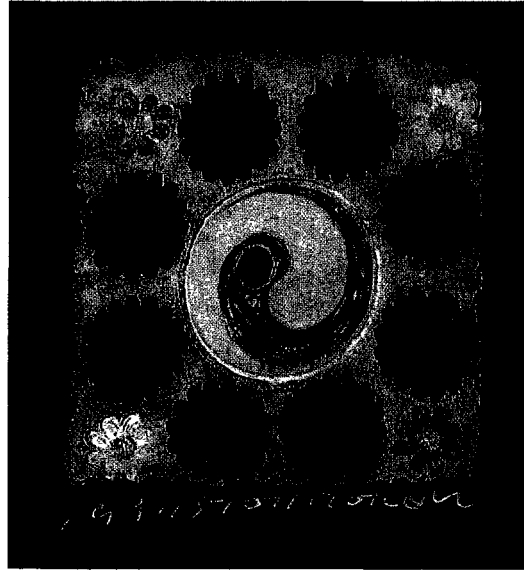
작품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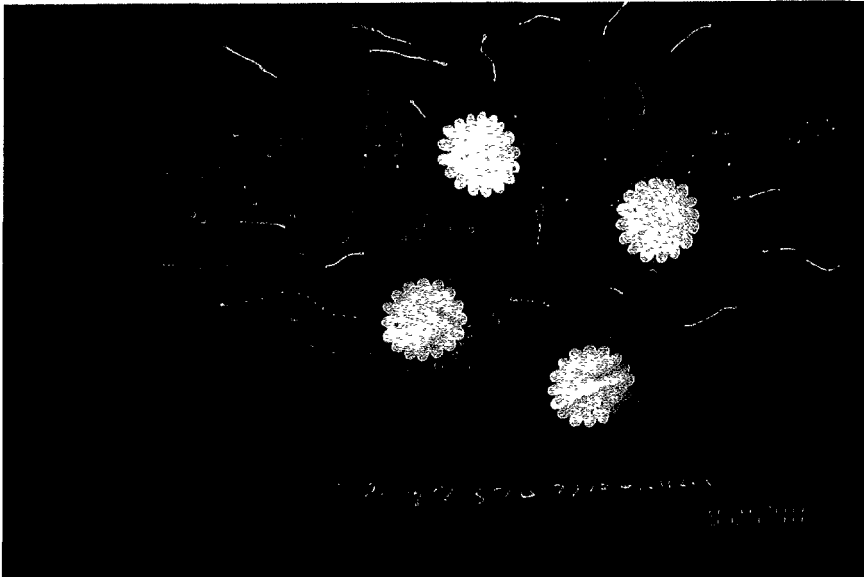
작품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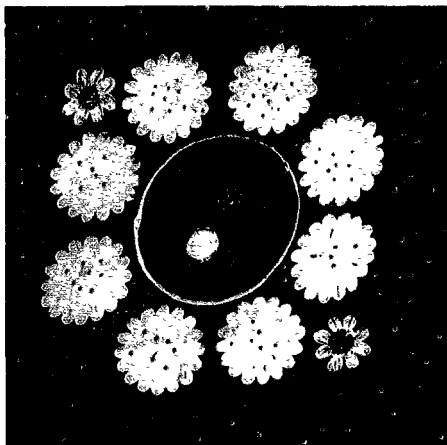
작품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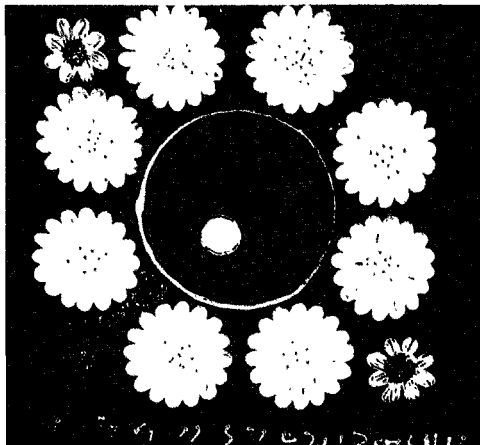
작품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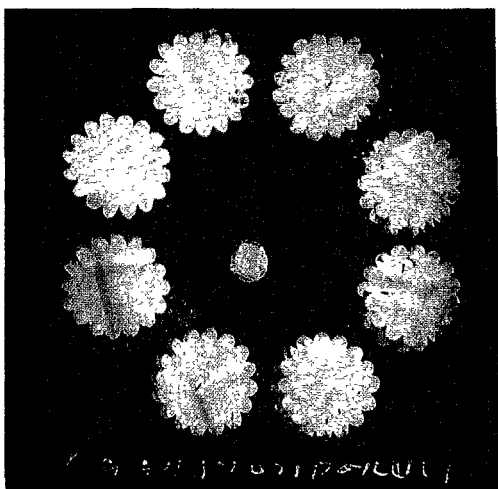
작품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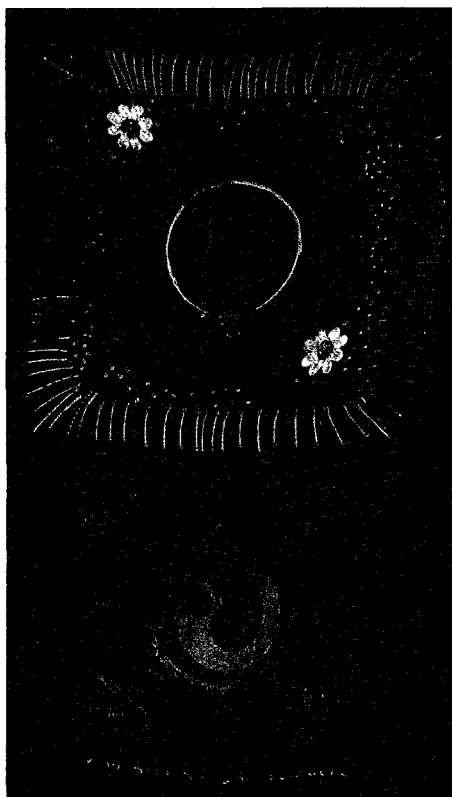
작품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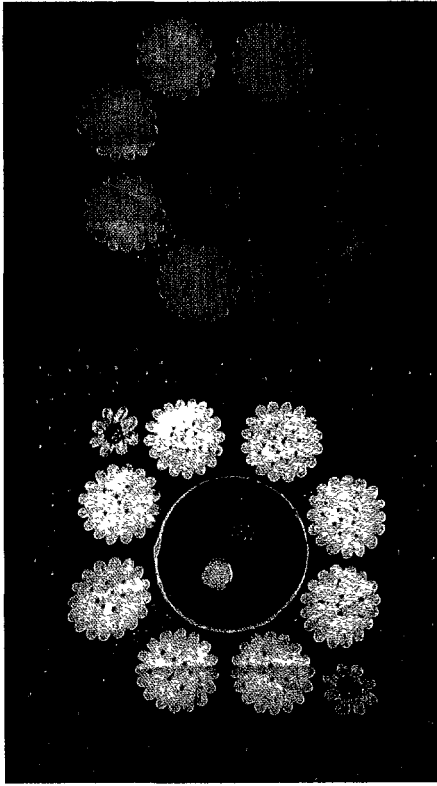
작품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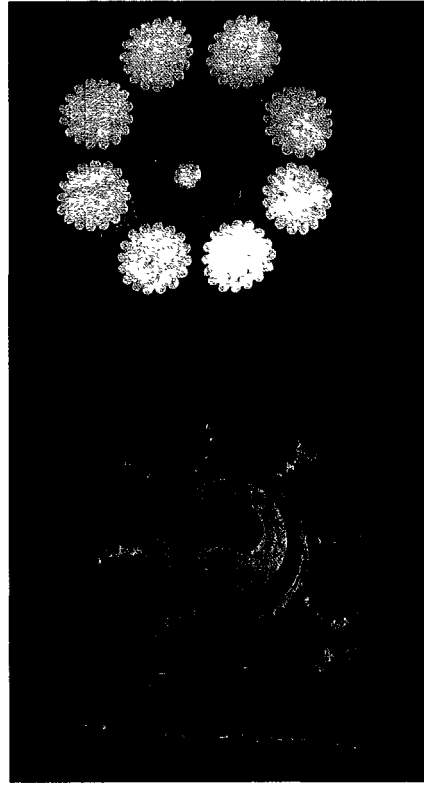
작품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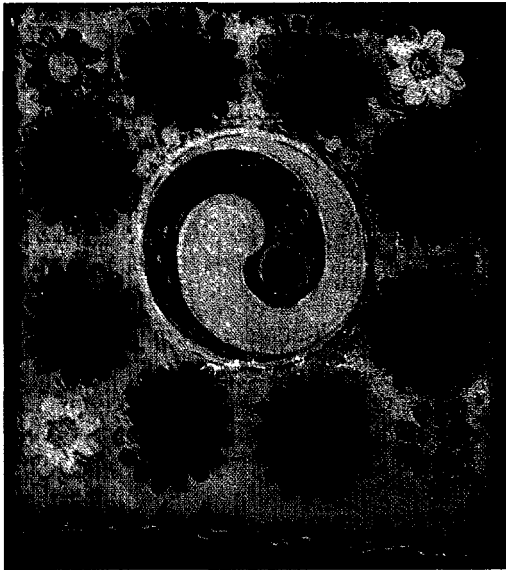
작품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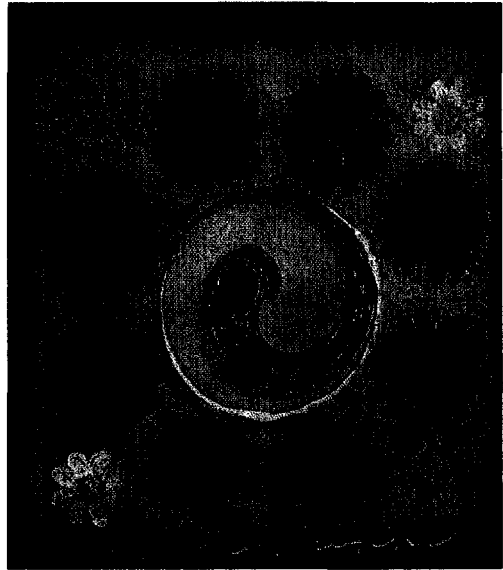
작품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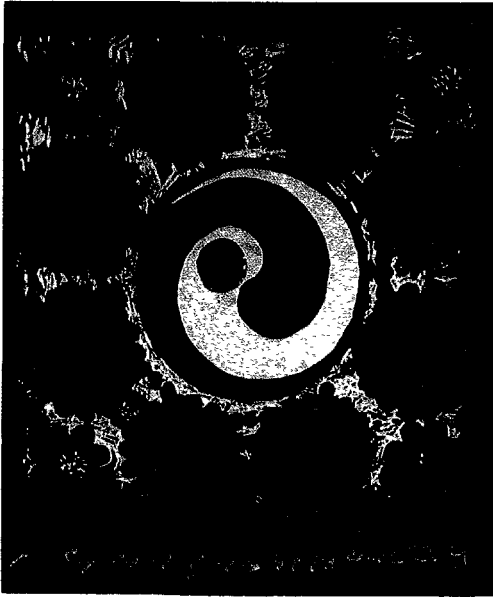
작품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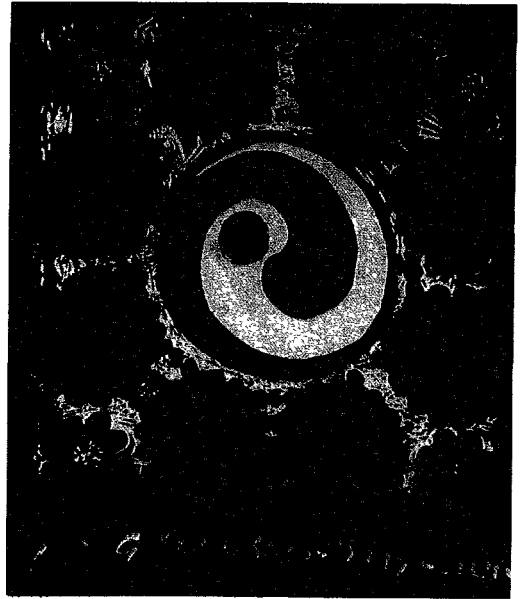
작품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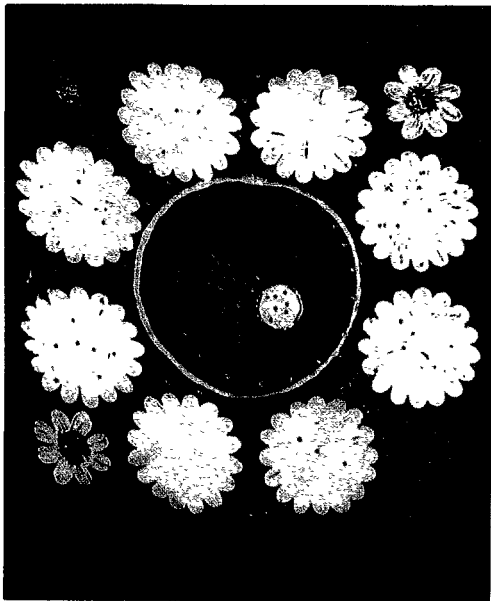
작품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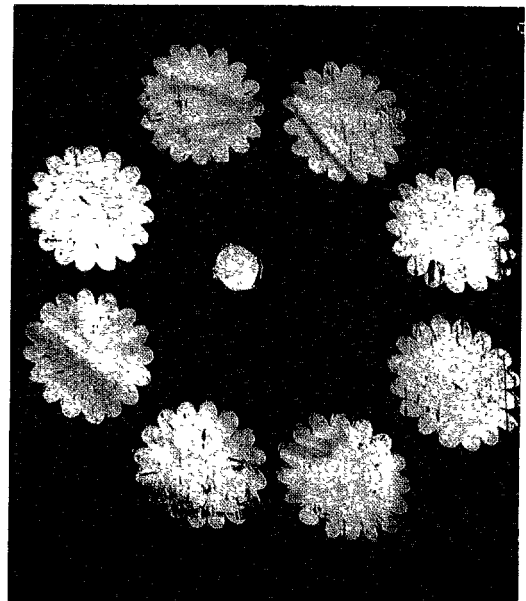
작품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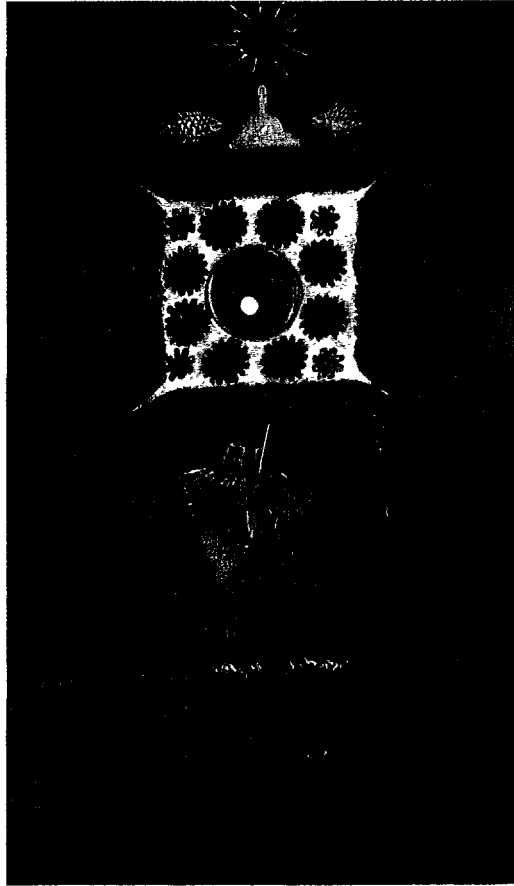
작품24



작품25



작품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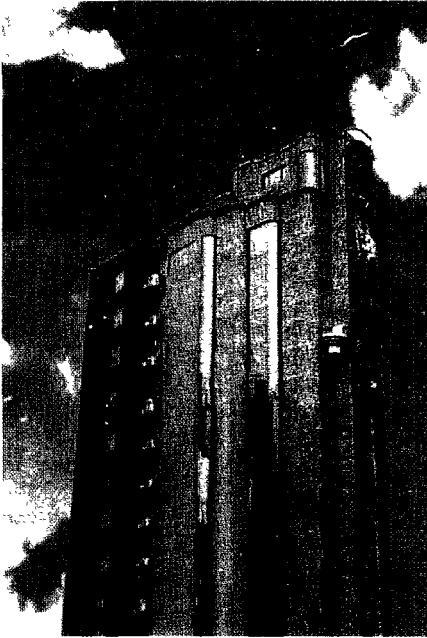
작품27/동맹 - 말의피를 나누어 마시고 쓰다.

- PET PILLING PABRIC
- DISPERSE DYES
- TEXTILE PRINGTING & PAINTING
- SPRAY DYEING
- SALT DYEING

동맹 (同盟: ALLIANCE)

나의 동맹은 과거와 현재의 그것이며 그러므로 상생의 미래이다.
단군과 나의 연합이며 수로와 유신과 흥도와 또한 나와 의 제휴이다.
그들은 모두 나의 과거 모습이며, 그러므로 일치의 미학이다.
또다른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와 말이 피를 나누어 마시고자 할 것이다.

단기 4332 백강(柏江)



작품 28/ 후천개벽 (後天開闢)

영겁(永劫)의 회귀, 우리의 사유방식
하늘과 땅이 조화롭게 맞붙어 일체 삼라만상을 갈라엮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 T,D : 김 언 배
- C,G : 이 영 중
- 장소 : 인터갤러리 아트센터 빌딩
- 규격 : 152 × 5000cm
- 소재 : PET PILLING FABRIC
- 기법 : - DISCHARGE & RESIST
PRINTING
- PADDING
- 염료 : DISPERSE DYES
- 제작년도 : 1997

III. 결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아래의 어두웠던 역사의 영향으로 아직도 식민사관의 그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우기 한국 전쟁과 이후 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 국가적 화두가 되어 우리민족의 원형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세계사의 흐름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각 민족이 스스로의 차별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미래세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족의 경우이거나 혹은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른바 개성시대요 감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정보화시대의 요체이기도 하다.

새로운 문화를 창달하고 세계사회와 더불어 상생화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의문과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식민사학을 극복하고 우리 역사와 고전에 대한 편견의 시대를 넘어 재발견의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창조적 인간에게는 특히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 역사적 전통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이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 한민족의 미래에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민족의 대표적 국가 상징중의 하나인 태극에 대해 고찰해 보고 연구자 나름대로 작품제작을 시도해 본 결과이며 개인적으로 필생의 연구주제에 관한 기초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도올 김용옥의 다음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줄고의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디자인은 결국 형태 (Form)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식의 문제며, 나의 삶의 체험의 양식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디자인은 주체적이 되어야 하며, 에콜로지칼 콘선(ecological concern)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문명의 디자인은 天地自然의 디자인과 회통되어야 한다. 그 회통의 제일원리를 老子는 樸(simplicity)이라고 불렀다. 樸은 모든 디자인의 가능성 (Potentiality)이다. 그리고 樸은 虛(Emptiness)다.

虛는 또다시 순환 (Circulation)의 가능성이다.

... 중 략 ...

한국인들은 디자인감이 매우 탁월하여 보편적이다. 한국인은 분명히 디자인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섬세하고 보편적인 감각이 있다. 공예품에서, 의상에서, 건축에서, 실내장식에서, ...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통일한국은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태다.

통일한국이란 결국 문명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것이다.^{주20}

- 주 1. 음양(陰陽 : the cosmic dual forces : the principles of Yin an Yang : the postive and negative (principles of Chinese philosophy) : the active and passive : the male and female principles [elements of being] : the sun and the moon: Shade and light : nagative and positive electricity : the cathode and anode . 「시사한영 대사전」
- 주 2.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 음·양의 2기와 수(水) 화(火) 목(木) 금(金) 토(土)의 5행으로 자연현상이나 인간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는 사상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 주 3. 한국문화 상징사전 , 동아출판사
- 주 4. 규원사화(揆圓史話) 1675년 (숙종1)에 북애노인(北崖老人)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이 쓴 역사책. 필사본. '규원'이라는 책이름은 저자가 부아악 (負兒岳 : 지금의 북한산) 기슭에 지은 자신의서재 이름에서 딴 것이다.
서문에 이 책을 쓴 동기를 과거시험에 낙방한 자신의 울적한 심기를 달래려는 것과 왜란과 호란을 겪은 뒤의 민족적 울분속에서 씩씩한 국사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한 책은 고려말의 이 명(李荈)이 지은 「진역유기 震域遺記」인데, 이책은 고려초 발해유민이 쓴 「조대기 朝代記」를 토대로 한 것이다.
본문에는 환인(桓因)과 환웅(桓雄)이 천지를 여는 과정, 환웅이 동방의 군장(君長)이 되어 수천년을 다스리던 역사와 혼웅의 아들 환검(桓儉)이 최초의 단군이 된뒤로 마지막 왕인 고열가(古列加)가 아사달의 당원경(唐苑京)에 들어가 나라가 망하기까지의 47대 1195년의 역사를 적고 있다. 또 저자이 도가적(道家的)인 우주관 인생관 그리고 문화의식이 나타나 있다. 민족고유신앙 입장에서 쓰여진 일종의 종교사화(史話)로 엄밀한 문헌고증의토대위에서 구성된 역사책은 아니다. 주로 전승되어온 민속 자료에 의거해서 엮은 것이다. 한말에 쓰여져 민족의식의 고양에 한몫을 한 「단기 고사 檀奇古史」·「환단고기 桓檀古記」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주 5. 중국의 서정(A.D 222-280)이 쓴 「삼오력기 三五曆記」에 반고(盤古)의 소위 개벽신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 신화에는 태극도상의 기본정신인 기(氣)에 관한 부분이 암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천지의 개벽이 있기전에 혼돈이 지속되었는데 그것이 계란 속처럼 몽롱한 상태였다. 반고는 그 몽롱함 속에 잉태되어 1만 8천년을 지난 다음 하늘(天)을 열었다. 그때 맑고 밝은 것(陽)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하고 어두운 것(陰)은 아래로 내려가 땅이 되었다. 반고는 그속에 있으면서 하루에 아홉번씩 변하였다. 하늘에 올라가면 신(神)이고 땅에 내려오면 성(聖)이었다. 하늘은 하루에 한 장(丈)씩 높아지고 땅은 하루에 한 장씩 두터워졌으며 반고는 하루에 한 장씩 자라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1만 8천 세가 되었다.”

이 신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창조가 논리에 관한 것으로, 창조가 시작되면서 세가지 물리적인 상태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그 하나는 맑고 맑은녘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탁하고 어두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며, 다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몽롱한 상태가 세 번째로 확인되고 있다. (- 박용숙 - 동덕여대교수. 기운생동의 원리와 태극도상)

반고는 중국도교의 천지창조 설화에 나오는 주요인물로 최초의 인간인 반고는 2개의 뿔, 2개의 어금니 많은 털을 가진 몸으로 혼돈을 의미하는 알속에서 튀어나왔다고 한다. 반고를 그린 예술적인 초상화는 대개 나뭇잎 옷을 입은 난쟁이로 묘사된다.



· 음양의 상징을 들고 있는 반고
· 중국인이 그림것을 19세기에 유럽인이 인쇄했다.
BY COURTESY OF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주 6. 한국문화상징사전. 593쪽

주 7. 디자이너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의 저자

주 8. 카발라 Kabbala (히브리어로 ‘전승’이라는 뜻)

Kabbala. Kabbalah, Cadala, Cabbalah라고도 쓴다.

유대교의 비의적(秘儀的)신비주의, 카발라는 신비스러운 경험에 내재해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내자가 교리와 의식을 전수하여 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내자가 교리와 의식을 전수하여 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내자가 교리와 의식을 전수하여 준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구전 전승이다. 비의적 하느님이 모세와 아담에게 전해 주었으나 성문화되지 않은 토라(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비밀지식이라는 점에서 카발라 역시 ‘전승’이다.

(중략. 브리태니커 사전)

주 9. 고문진보 (古文眞寶) : 중국 선진(先秦)이후 송(宋)나라까지의 시문을 모은책. 편자는 미상 20권

주 10. 홍마노 (紅瑪瑙 Sardonyx) : 붉은 줄무늬가 있는 마노

- 마노 (agate) 평범한 준보석의 실리카광물. 본질적으로 석영이 대부분이며 물리적 성격도 석영과 비슷하다.
- 흰줄무늬에 검은색·갈색·붉은색의 줄이 교대로 나타나는 마노를 ‘오닉스’(onyx)라고한다. 오닉스는 성서(출애 28:20, 39:13)에서 여호와 대제사장의 줄무늬의 마노흉패를 장식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12가지 들가운데 하나이다.



줄무늬의 마노

주 11. 정연중.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 135쪽

주 12. 김병모. 금관의 비밀 134쪽

주 13. 안상수. 한국전통문양집5. 태극무늬 16쪽 ‘태극과 팔괘’ 中. 임영주의 글

주 14. 보어 Niels (Henrik David) Bohr 1885 ~ 1962

덴마크의 물리학자. 20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자중의 한사람으로 양자물리학에 중요한 공헌을 했으며 1922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주 15. 홍세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308쪽

주 16. 백문섭 편저. 「올바른 태극기 해설」 53쪽

주 17. 정연중.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 90쪽

주 18. 백문섭 편저. 「올바른 태극기 해설」 59쪽

주 19. 이어령 태극 가장 잘구르는 수레바퀴

주 20. 김용욱 「삼국통일과 한국통일」 154 ~ 155쪽 (상권)

참고문헌

- 단행본

- 박신환, 「주역의 이해」, 서울 : 서광사, 1990
- 김광언, 「김광언이 민속지 서울」, : 조선일보사 출판국, 1994
- 김병모, 「금관이 비밀 서울」, : 도서출판 푸른 역사, 1998
-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서울 : 을유문화사 1996
- 김삼룡, 「동방의 등불 한국」, 서울 : 행림출판, 1994
- 김석진, 「주역강해」, 서울 : 대유학당, 1993
- 김용옥 엮음, 「삼국통일과 한국통일」, 서울 : 통나무, 1994
- 백문섭 편저, 「올바른 태극기 해설」, 서울 : 한국윤리위원회, 1991
- 신영훈, 「우리문화 이웃문화」, 서울 : 문학수첩, 1997
- 정영중, 「태극은 한국인의 상징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 서울 : 조이정 인터내셔널. 1996
- 이어령, 「문화가족1」, 서울: 문화부, 1990
- ——, 「그래도 바람개비는 돈다」, 서울 : 동화서적,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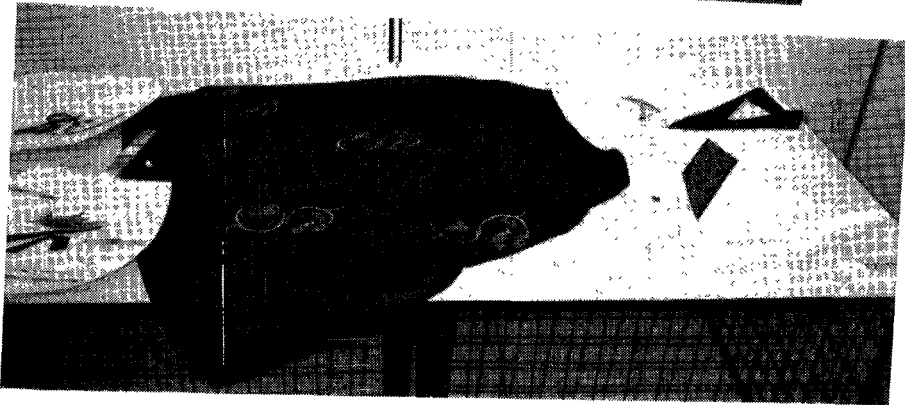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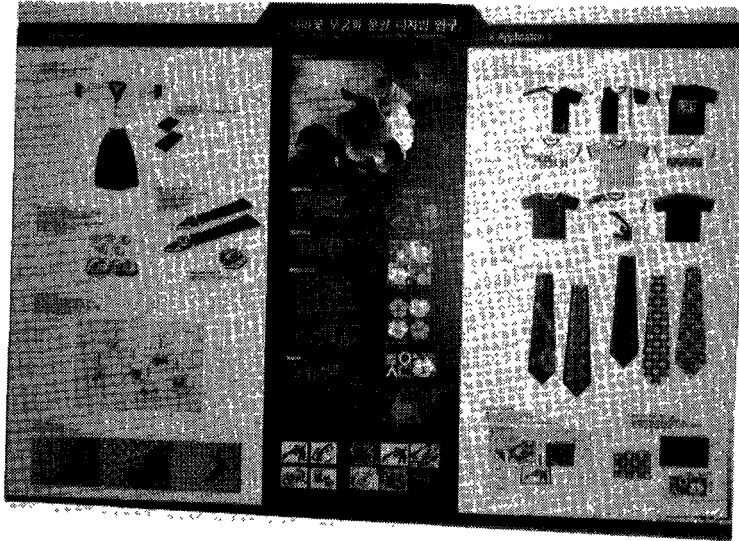
-사전

- J.C.Cooper, An I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and Hudson Ltd」, 1978
 - 이윤기역, 「세계문화상징사전」, 서울 : 도서출판 까치, 1997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2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서울: 삼화인쇄, 1992
- 교육출판공사,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 교육출판공사, 1987
- 한국미술연감사, 「미술사전」, 서울 : 한국미술연감사, 1989

-논문

- 박경환, 「태극도설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방영주, 「조선조 태극문양연구」, 서울 : 홍익대학교 산미대학원 석사논문, 1985
- 정희정, 「한국태극심불에 관한 고찰」,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응미과, 1980
- 한 장원, 「한국부적에 관한 문양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9

부록 : 1. 국가상징물을 활용한 문화상품디자인개발 사례



(그림 1) · 무궁화를 응용한 제품디자인
· 1997 대한민국 산업디자인년 수상작



(그림 2) 전시 안내판 (Sign board)
한국과 태극의 상징색인 적,
청을 주색(主色 : main
color) 으로 하고 흑, 백
등을 보조색 (Sub color)
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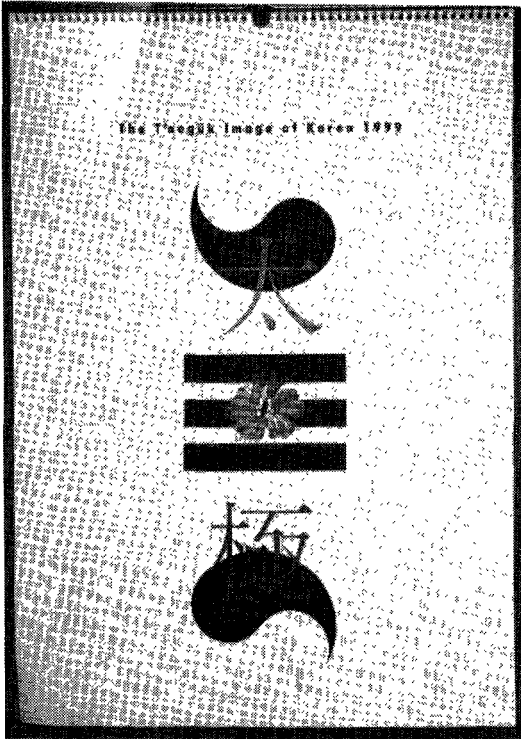
(그림 3) 전시장 앞마당 광경
태극과 4괘중 건(乾,三)을 이용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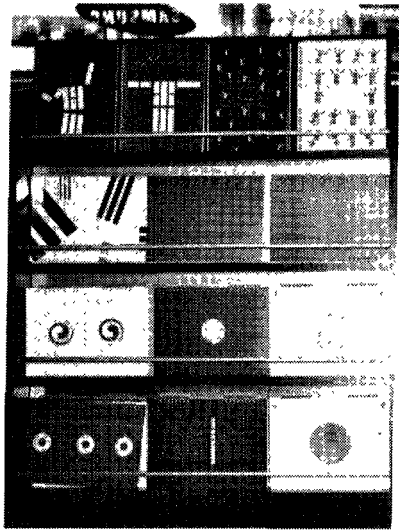
(그림 4) 전시장 입구의
휘장 (B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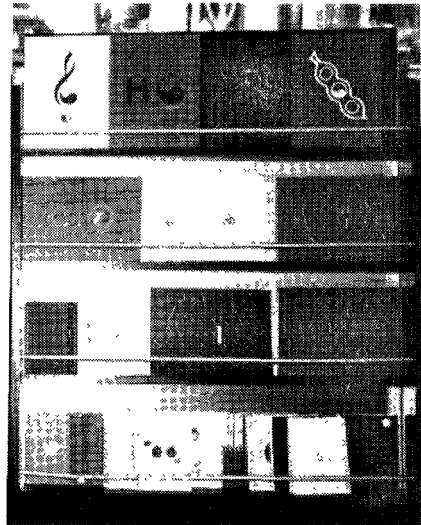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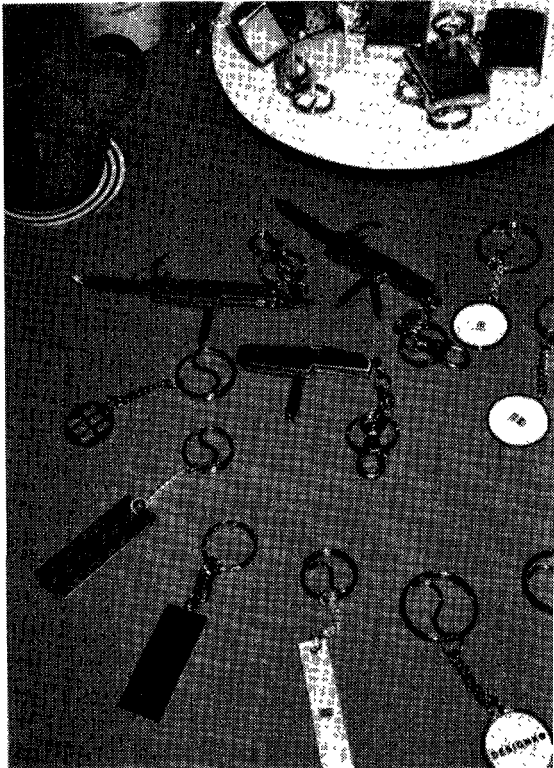
(그림 5) 가로시설물을 적절히
활용한 휘장디자인



(그림 6) 태극문양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달력이 표지디자인으로 활용하였다. 양태극은 곡옥태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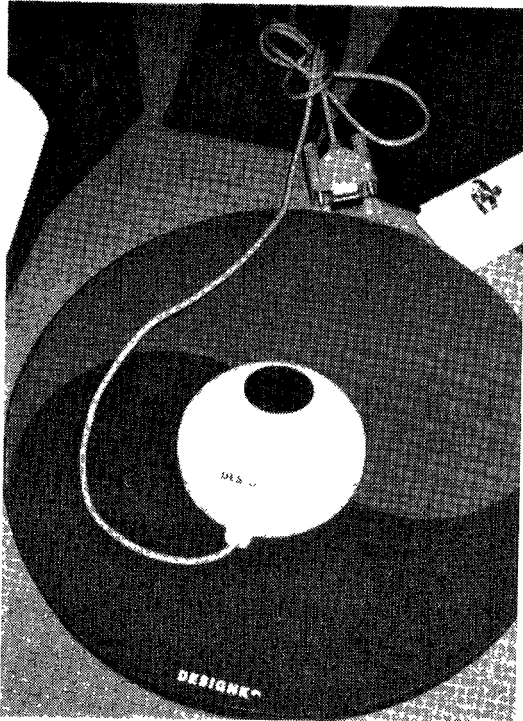


(그림 7) 태극과 4괘를 활용하여 인간의 여러동작을 기호화하여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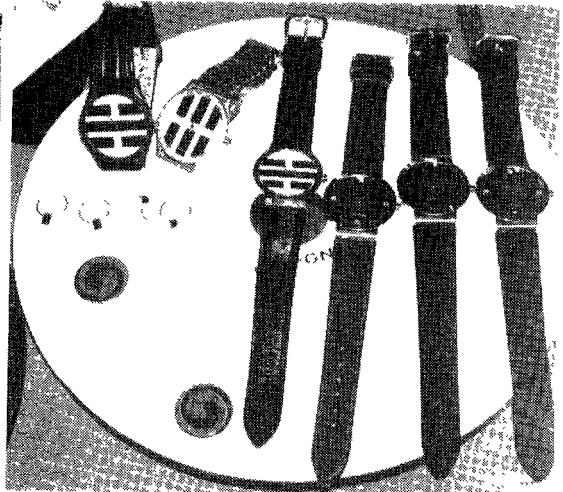


(그림 8) 태극을 높은음자리표, 볼의 분자식, 풍각지의 단면 등에 중복 이미지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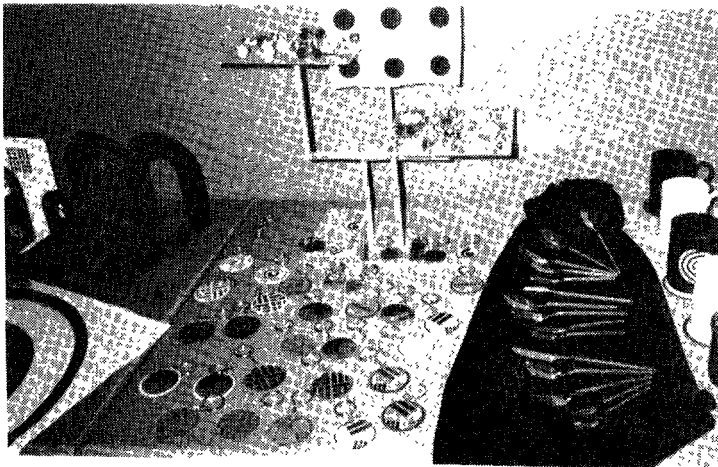
(그림 9)
 · 여러종류의 열쇠고리 (Key holder)
 · 칼, 병따개
 · 라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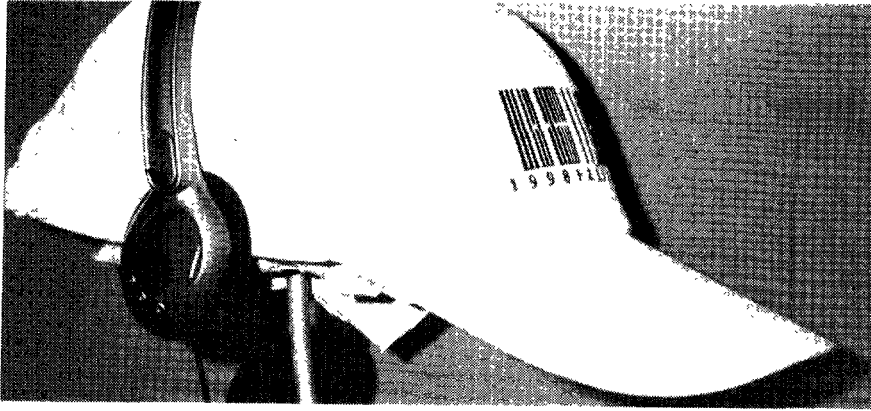
(그림 10)
· 컴퓨터 마우스 및 마우스 패드
· 칼, 병따개



(그림 11) 시계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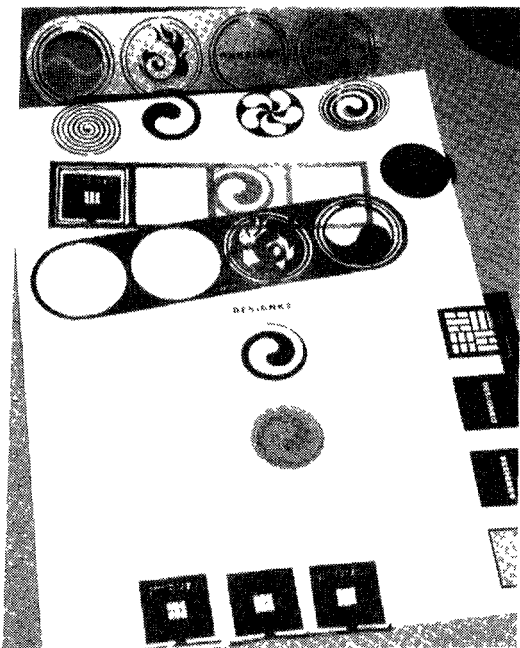
(그림 12) 티 스푼 세트, 열쇄고리 및 각종 액세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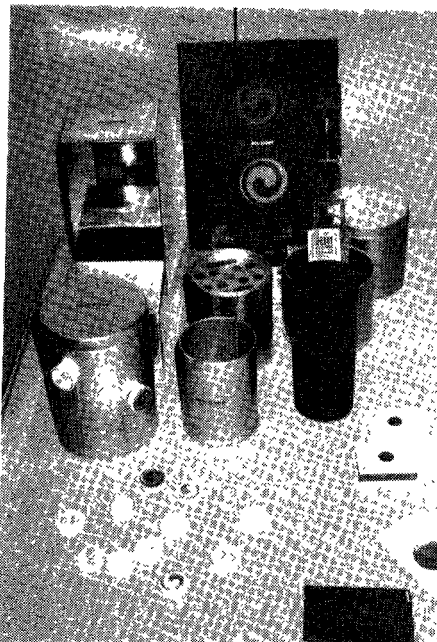
(그림 13) 모자와 헤드폰



(그림 14) · 라이터 · 수도꼭지 · 머그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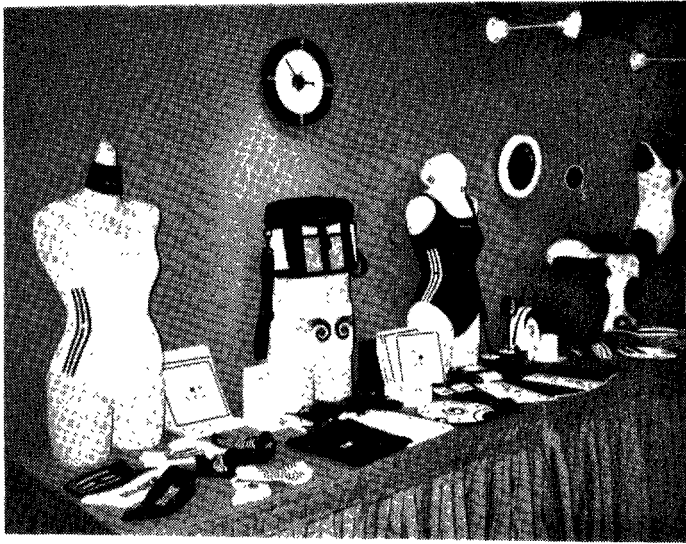
(그림 15) 책갈피 (Book Mark)



(그림 16) 저금통, 연필꽂이



(그림 17) 양말디자인



(그림 18) 수영복, 시계, 내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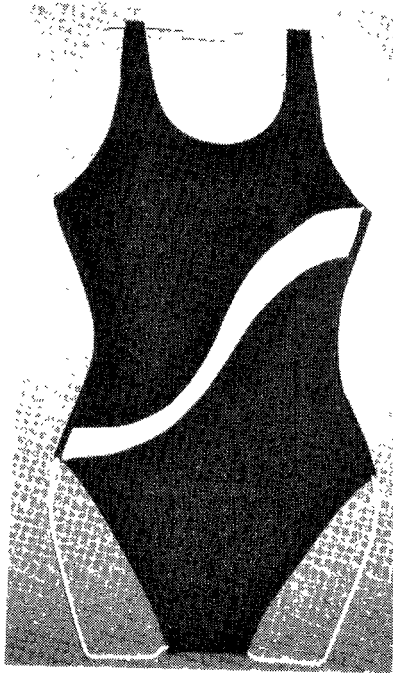


(그림 19) 수영복, 수건, 칸막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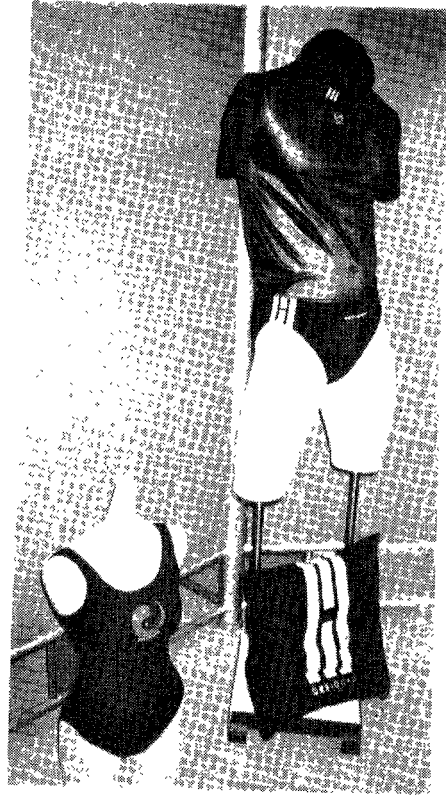


(그림 20) 벽걸이, 쿠션, 수영복

*그림21-23 수영복 디자인



(그림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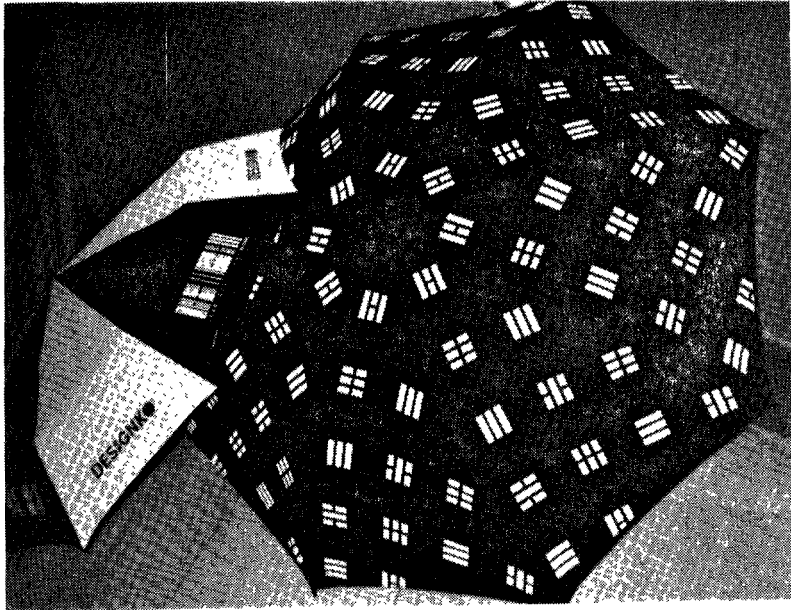


(그림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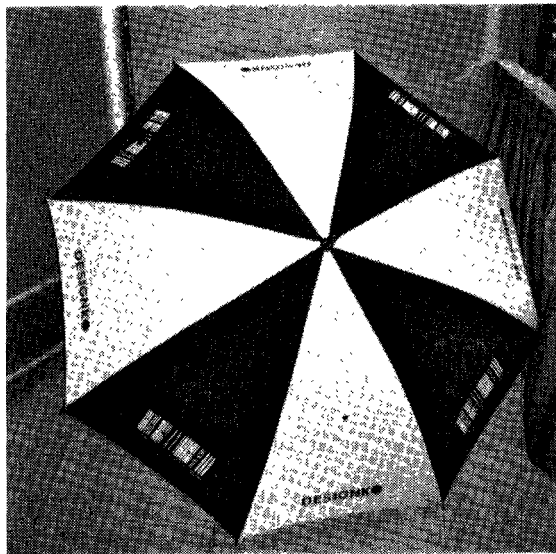


(그림23)

*우산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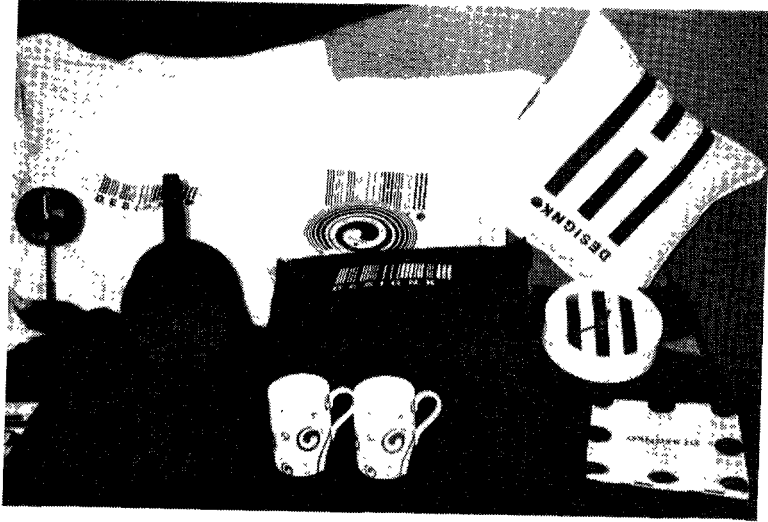


(그림 24)



(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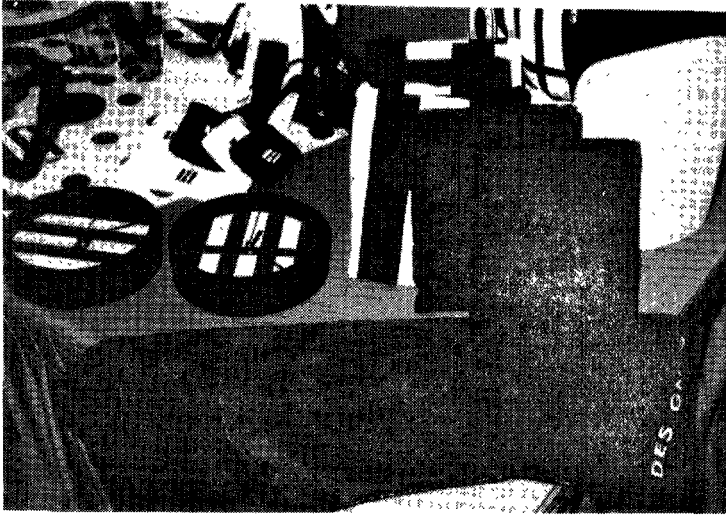
- * (그림 26 - 30) · 쿠션, 머그, 시계
· 모자, 장갑
· 수건
· 앞치마



(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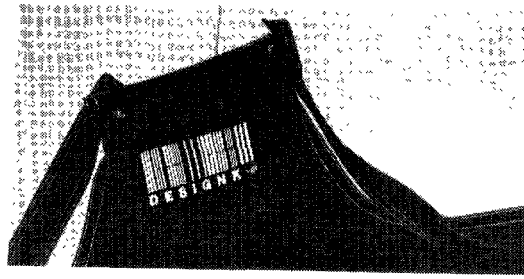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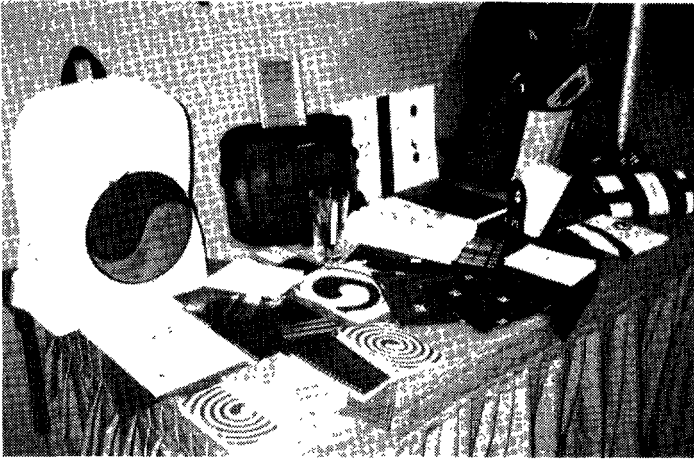
(그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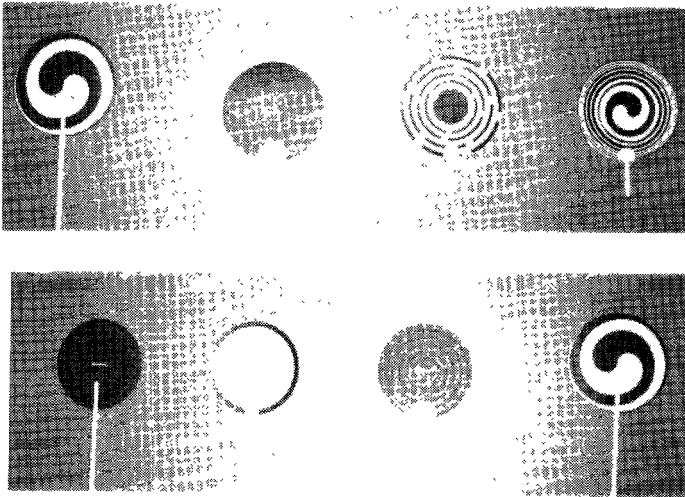
(그림 31) 모자, 가방, 필통, 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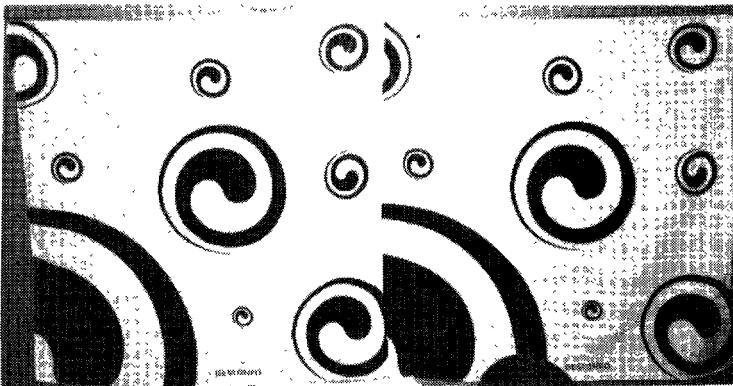
(그림 32)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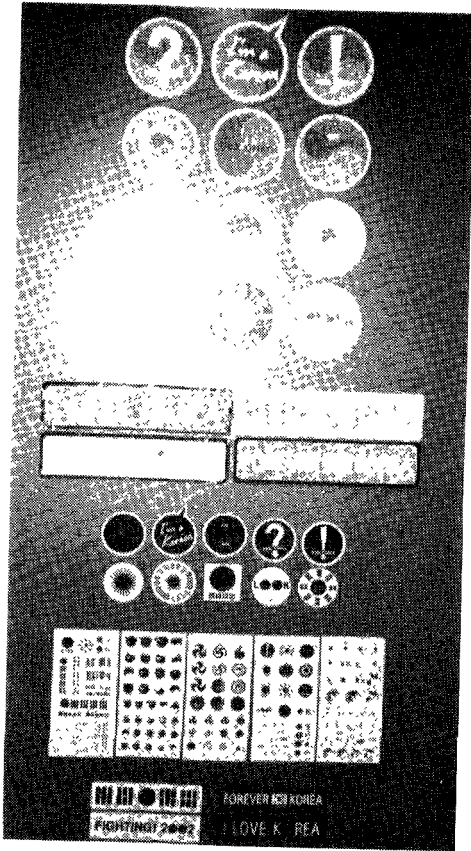
(그림 33) 가방, 문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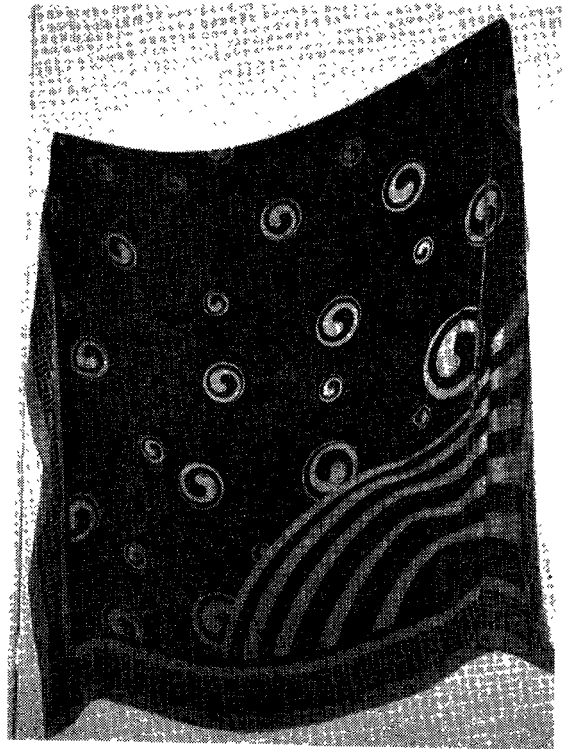
(그림 34) 부채디자인



(그림 35) 손수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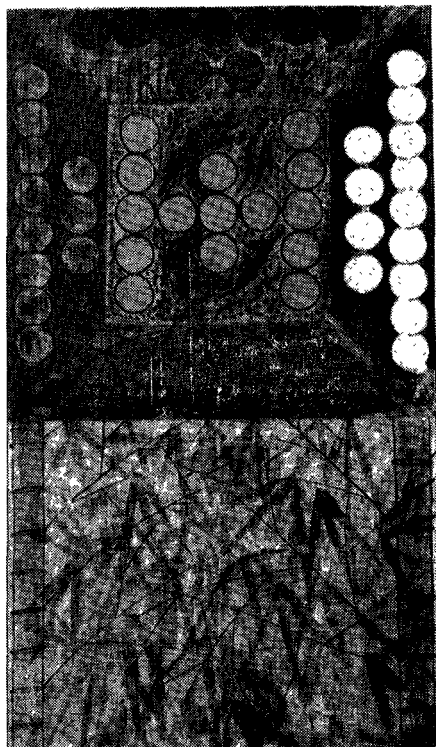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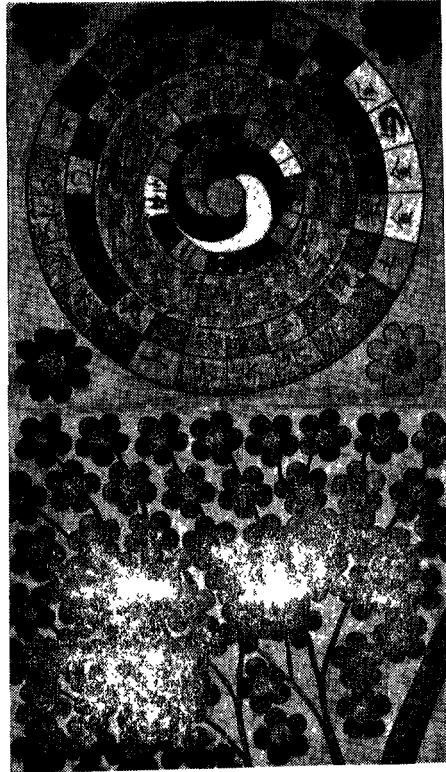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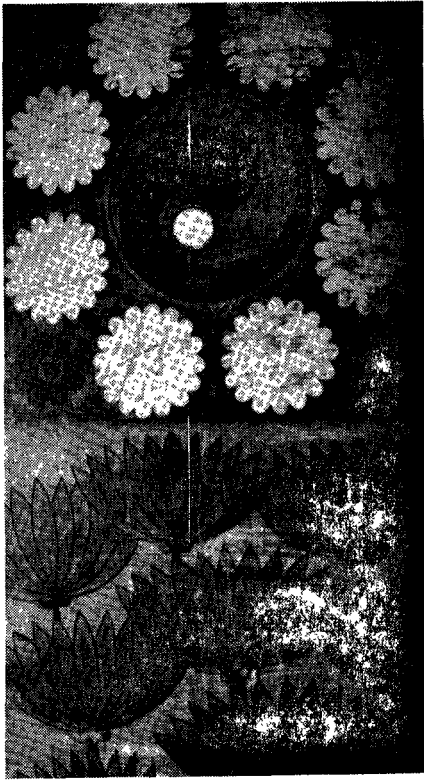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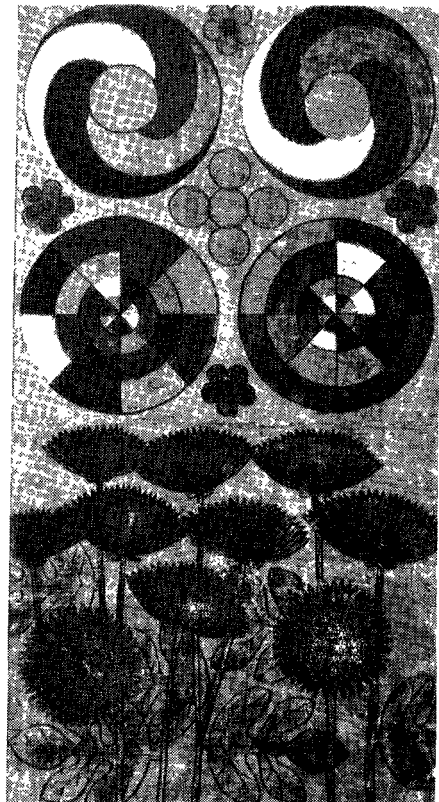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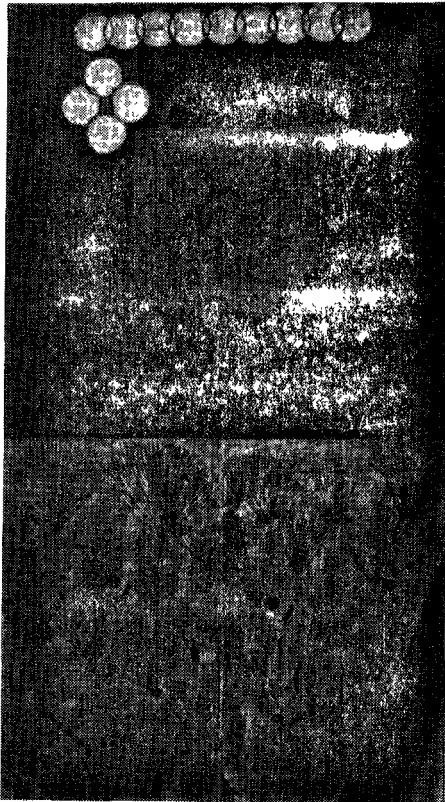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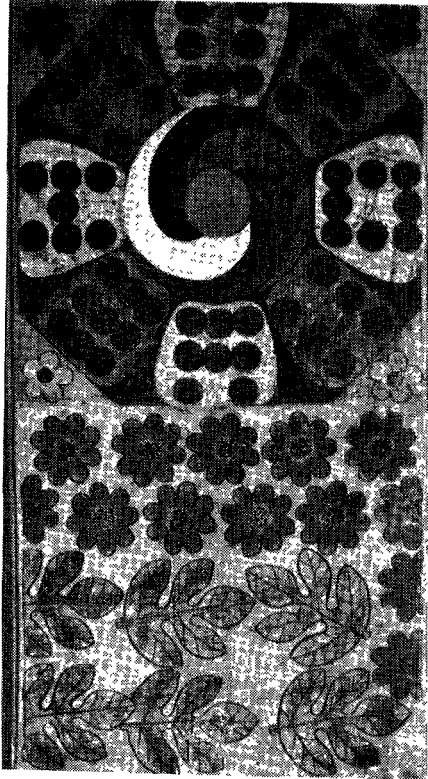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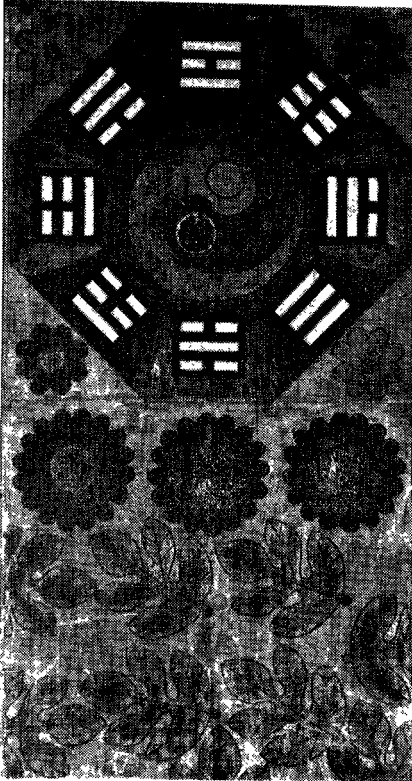
(그림 36) 라벨, 스티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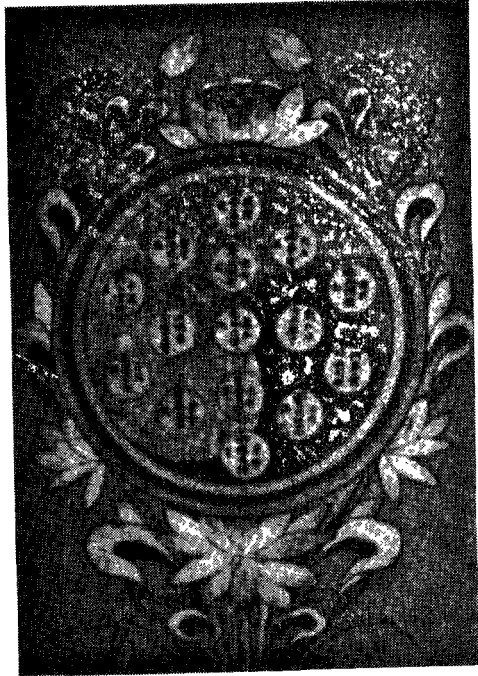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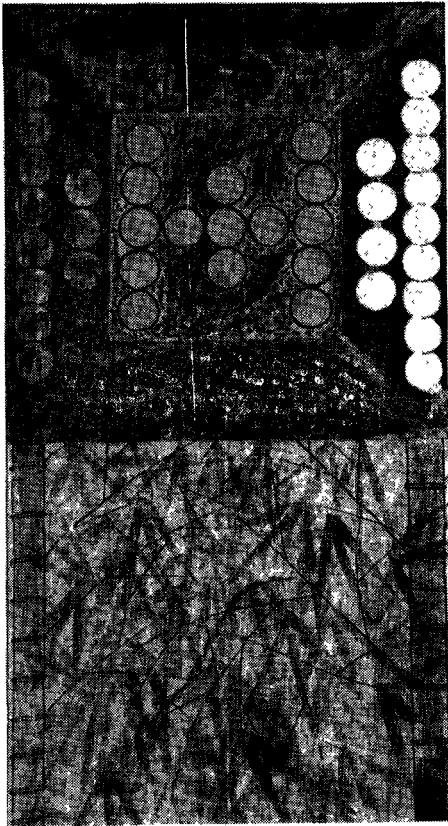


(그림 37) 스카프디자인

부록 : 2. 민화의 태극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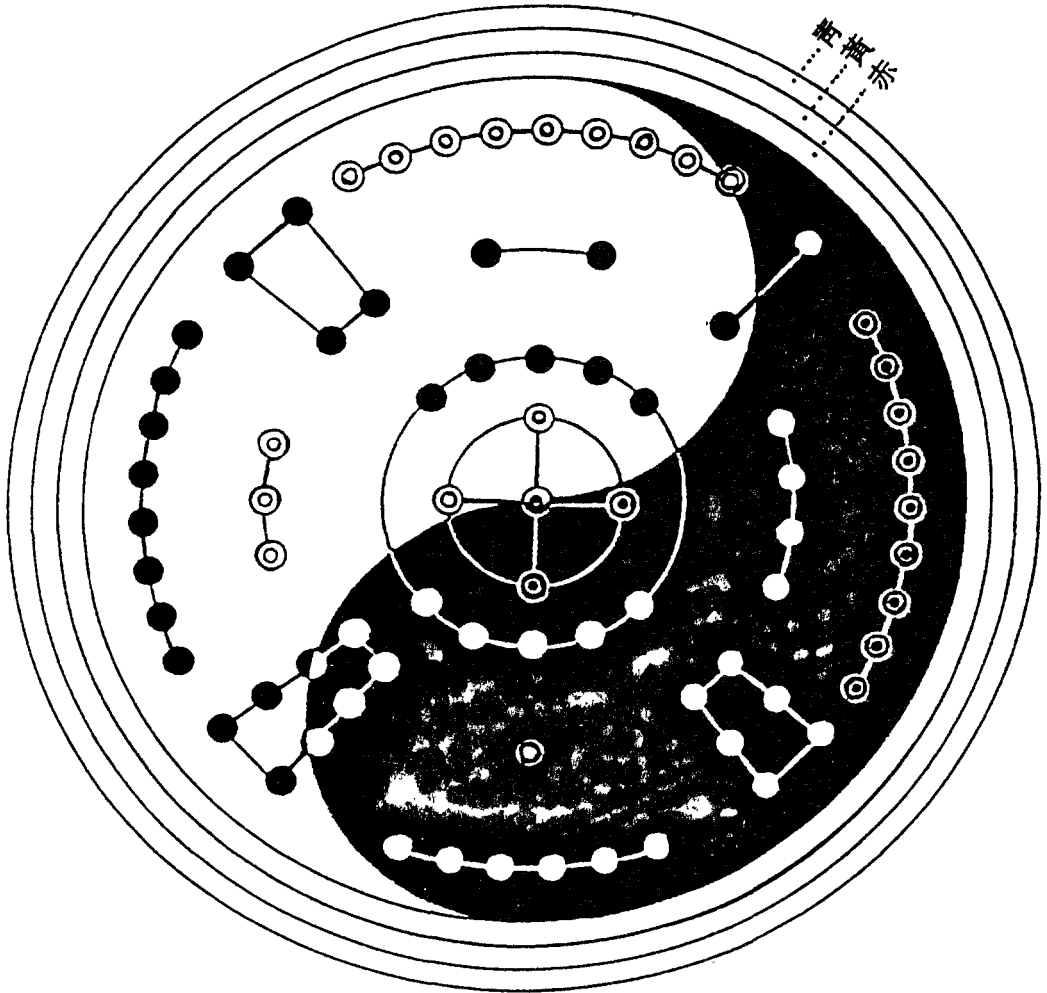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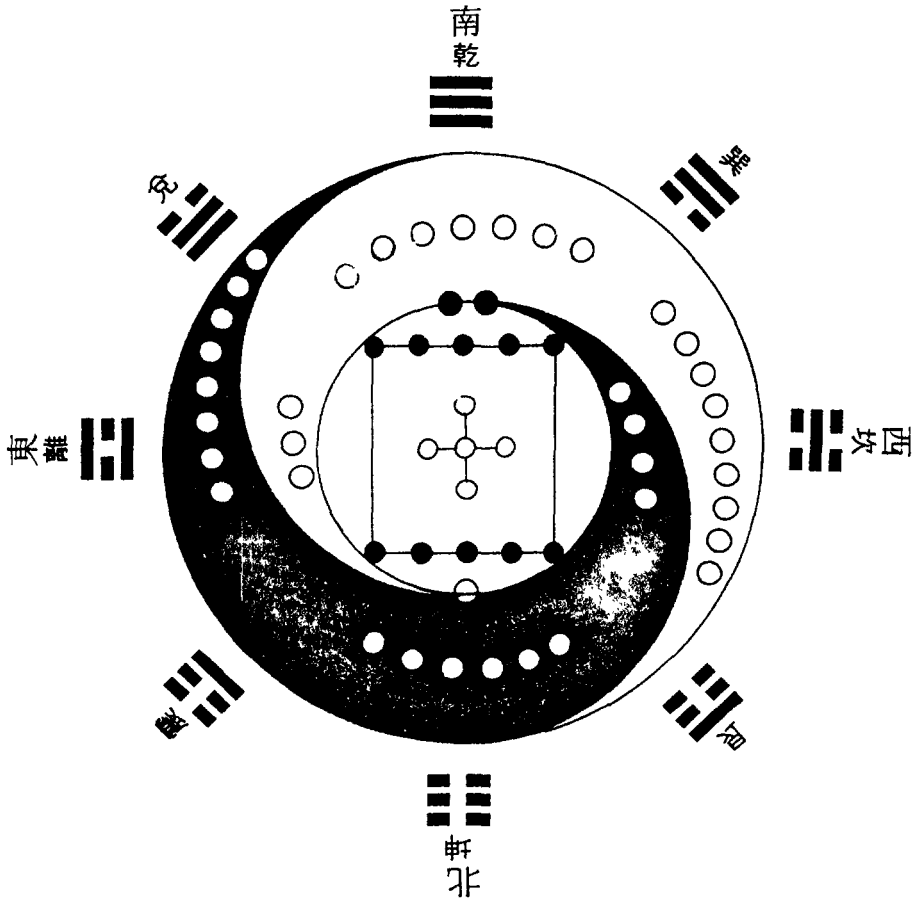
부록 : 3. 태극관련그림

河洛總百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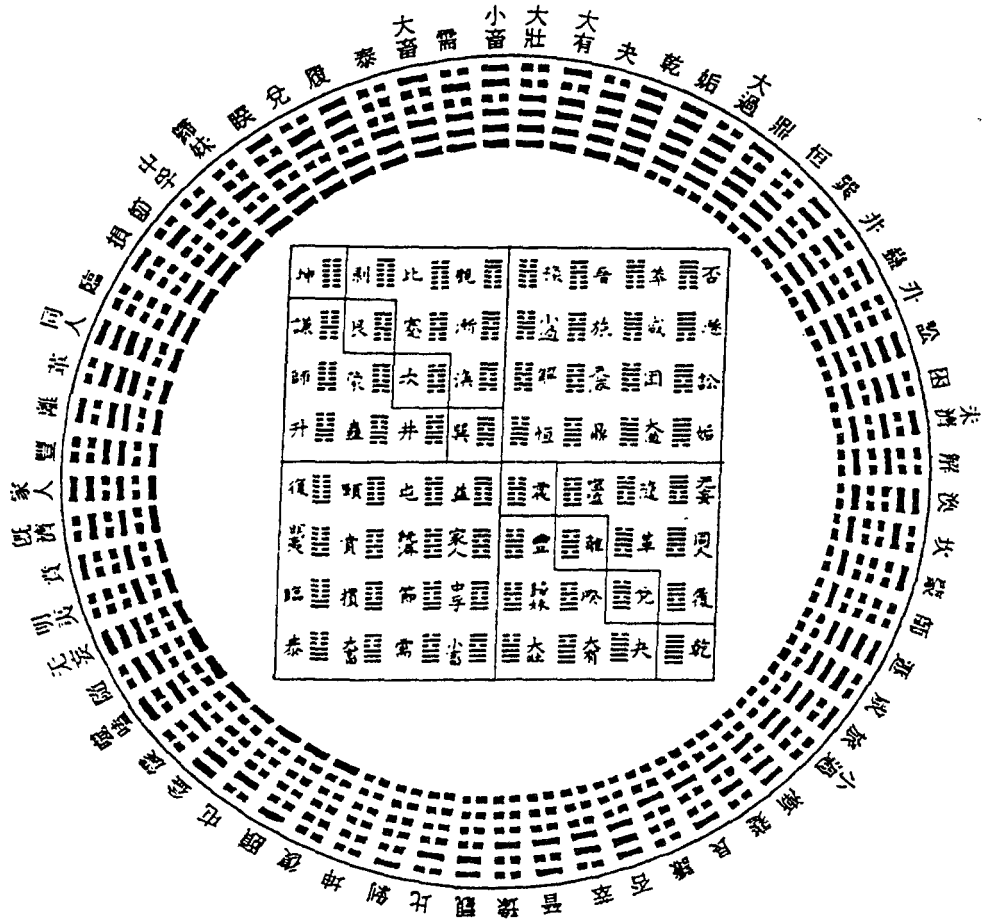
선천 하도의 1에서 10에 이르기까지 총합인 55(천지의 수)와, 후천낙서의 1에서 9에 이르는 九宮 총수 45를 합하면 모두 100이 된다. 하도는 오행이 상생하는 선천 원리의 바탕이며, 낙서는 오행이 상극하는 후천 작용의 근본이 되니 만물의 상극묘용은 하락의 총수인 100에 말미암는다. 한편 100을 둘로 나누어 평균한 50은 만물을 낳는 大衍數(母體)로서 태극으로부터 괘효가 나오는 모든 과정(撰著)이 이에 의거한다.

太極河圖



하도는 본체를 의미하므로 낙서와는 달리 8괘를 생성하는 근본원리가 담겨져 있다. 1·3·5·7·9는 양이 팽창하는 것이고, 10·8·6·4·2는 음이 응축하는 모습을 표상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만물의 기본 동작인 태극의 형태로 나타난다. 복회 선천팔괘 역시 태극운동에 기인하여 나오므로 하도와 부합하는 것이다. 하도와 8괘를 대비하면 5·10±는 태극의 씨알(有極)이며, 乾은 유극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양인 남방에,兌는 아래로 2/3부분이 양이고 위로 1/3이 음인 동남방에, 진은 아래로 1/3은 양이고 위로 2/3는 음인 동북방에,巽은 아래로 1/3은 음이고 위로 2/3는 양인 서남방에,艮은 아래로 2/3는 음이고 위로 1/3은 양인 서북방에,坤은 모든 부분이 음인 북방에 배당하며,離와坎은 음양이 각각 반인 동과 서에 배당하되, 동은 양이 커나가는 방소이므로 離를, 서는 음이 성해나가는 방소이므로坎을 배당한다. 현재 쓰이고 있는 태극은 用이므로 윗 그림과는 운동방향이 반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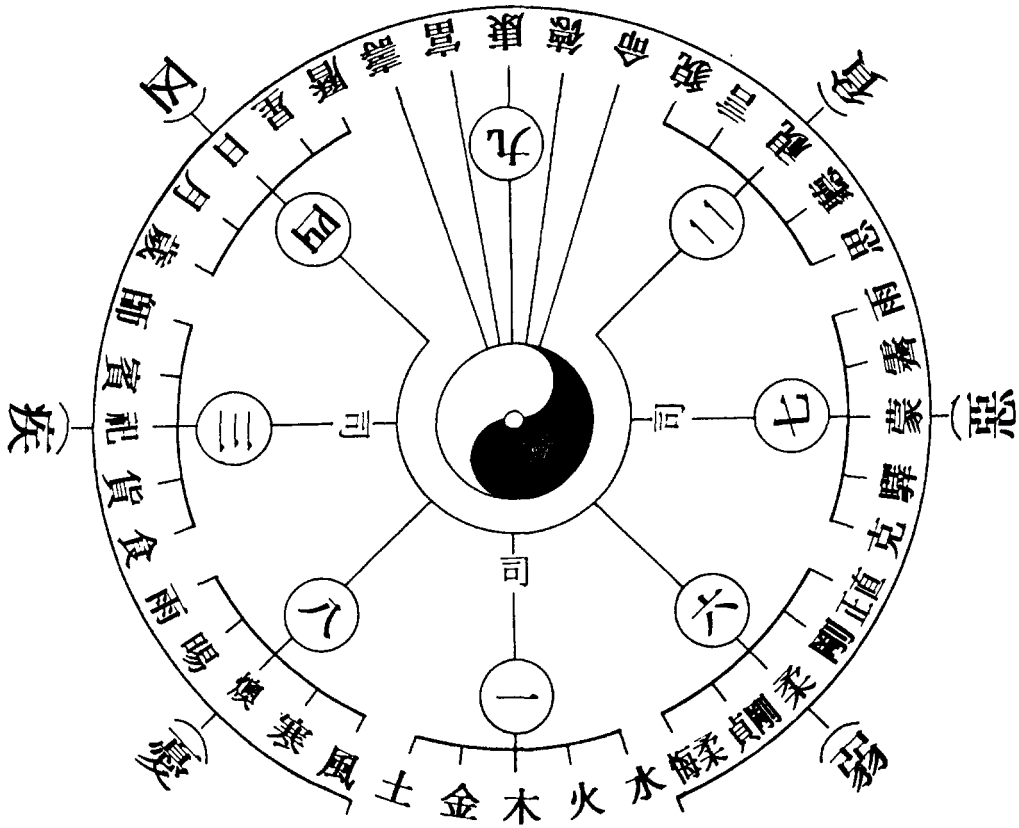
伏羲 先天 64괘 方圓圖



복희씨의 64괘가 전개되는 과정은 1生 2法에 의하여, 태극으로부터 兩儀·四象·八卦로 삼변하여 이루어진 선천 8괘를, 다시 거듭함으로써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함을 보인다. 밖의 원도는 상하(남북)의 정점에 乾·坤을 놓아 體를 세우고, 復으로부터 乾까지는 양이 자라는 것을, 姤로부터 坤까지는 음이 자라는, 즉 음양의 소장하는 원리로서 괘를 전개하였으며, 안의 방도는 서북과 동남에 乾과 坤을 놓아 전체적으로 음양이 교합하여 안정된 모습이다.

하늘은 둥글어 動的이며 땅은 모나 靜的이므로, 圓圖는 하늘을 方圖는 땅을 각기 상징한다.

皇極 49 策 圖



殷의箕子가 周의 武王에게 전한 「洪範九疇」는, 천하를 다스리는 政治大法으로 아홉가지 범주로써 나누어져 있다. 다섯번째 황극이 중심이 되어 大中至正한 법도로써 천하를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洛書九宮이치에 근거한 것이다.

‘황극 49책’은, 설시에 있어 50시초로써 대연하는 이치와 같으니, 황극은 不用數인 太極 一 策이며, 나머지 用數인 49策이 구주의 나머지 내용에 해당한다.

皇極經世解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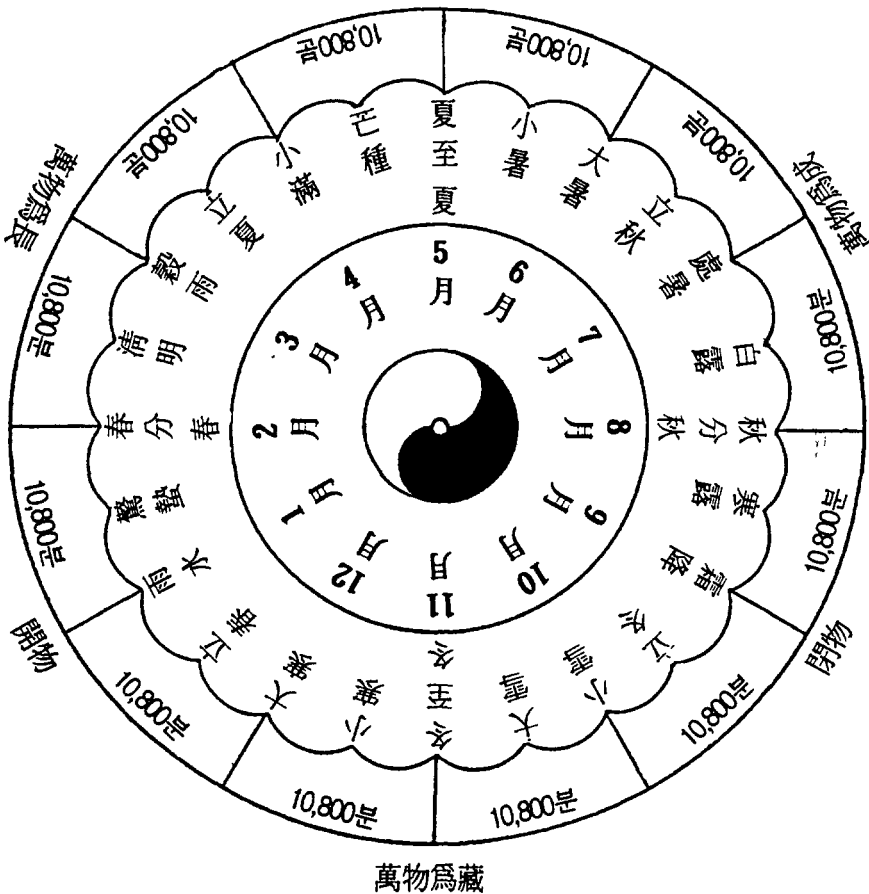
乾 ☰						離 ☲					
夬	大有	小畜	履	同人	姤	豐	同人	賁	噬嗑	大有	旅
☰	☰	☰	☰	☰	☰	☰	☰	☰	☰	☰	☰
巳會		辰會		卯會		寅會		丑會		子會	
夬	大有	小畜	大泰	履	兌	睽	中節	損	臨	同	革
有	壯	畜	畜	夬	睽	妹	孚	人	濟	既	濟
☰		☰		☰		☰		☰		☰	
망중	소만	입하	곡우	청명	춘분	경칩	우수	입춘	대한	소한	동지

坤 ☷						坎 ☵					
剝	比	豫	謙	師	復	渙	師	困	井	比	節
☶	☶	☶	☶	☶	☶	☶	☶	☶	☶	☶	☶
亥會		戌會		酉會		申會		未會		午會	
剝	比	觀	豫	晉	萃	否	謙	艮	蹇	漸	小
										旅	過
☷		☷		☷		☷		☷		☷	
대설	소설	입동	상강	한로	추분	백로	처서	입추	대서	소서	하지

邵子の「皇極經世」에 나오는 내용으로 선천 64괘 次序에 의거하여 황극이 선천을 경영하는 도를 밝힌 것이다. 경세도의 乾·坤·坎·離는 體卦로써 4時·24절기를 대표하고, 나머지 60괘(360 爻)는 用卦로서 1년 주천상수 360日을 나타낸다. 1年·12月·360日·4,320時를 크게 보면 1元·12會·360運·4,320世의 주기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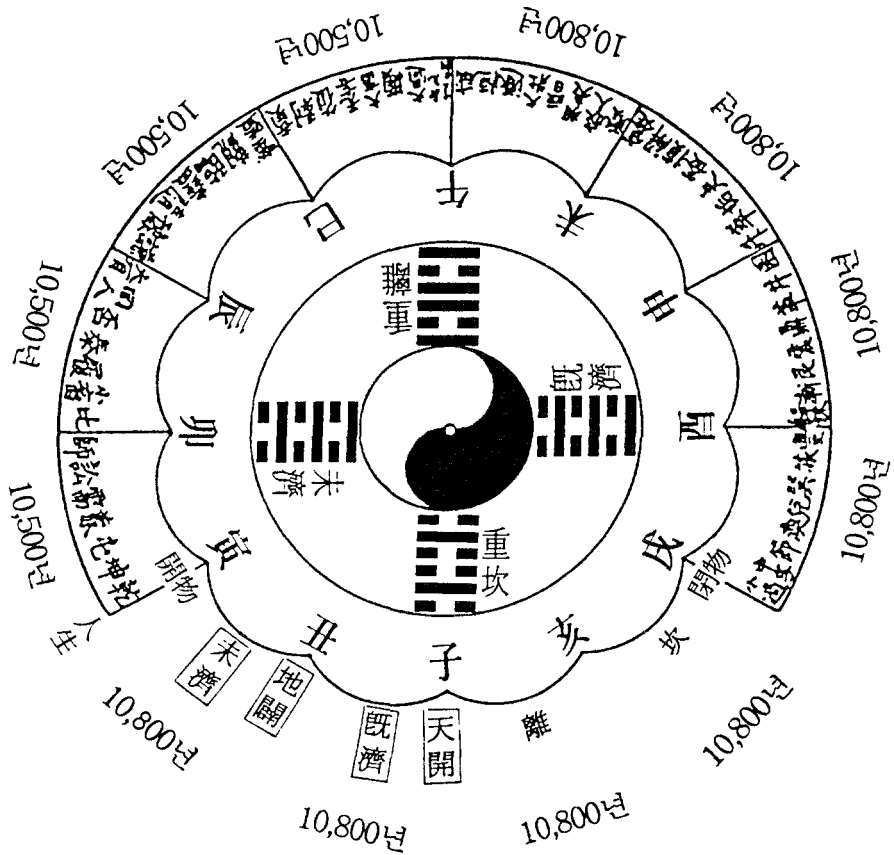
* 소자의 경세년표에서 역사 서술상의 출발점(기준)은 堯 등극년도(B.C.2357 甲辰)로서 경세 운괘상으로는 巳會의 마지막 夬卦 乾運의 小畜之大畜에 해당한다.

先後天分解圖(一年)



1년의 24절기를 선천과 후천으로 나누면, 一陽이 始生하는 冬至에서 夏至까지가 선천, 一陰이 시생하는 하지에서 동지까지가 후천이 된다. 이는 天道에 기준한 것이며, 만물의 생성 소멸하는 주기로써는 우수이후 하지까지가 만물이 성장하는 선천, 하지이후 상강까지가 만물이 성숙하는 후천, 상강으로부터 우수에 이르기까지가 만물이 폐장하는 후지기가 되니, 天道는 二分하고 人事는 三分하여 선후천을 구분하는 것이다(參天兩地の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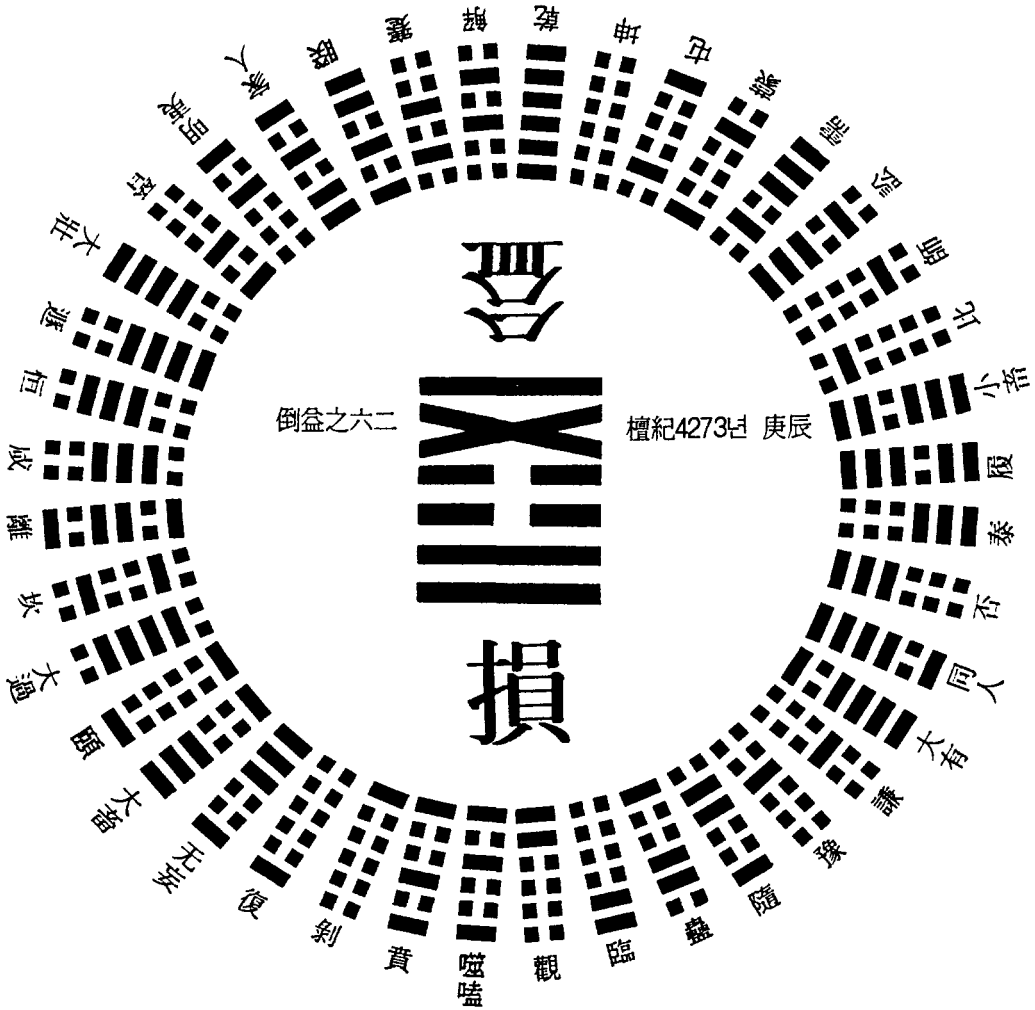
先後天 分解圖(一元)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천도에 있어서는 子會半에서 午會半까지가 선천(6會 64,800年), 오회반에서 자회반까지가 후천(6會 64,800年)이 되며, 이를 합한 129,600년이 一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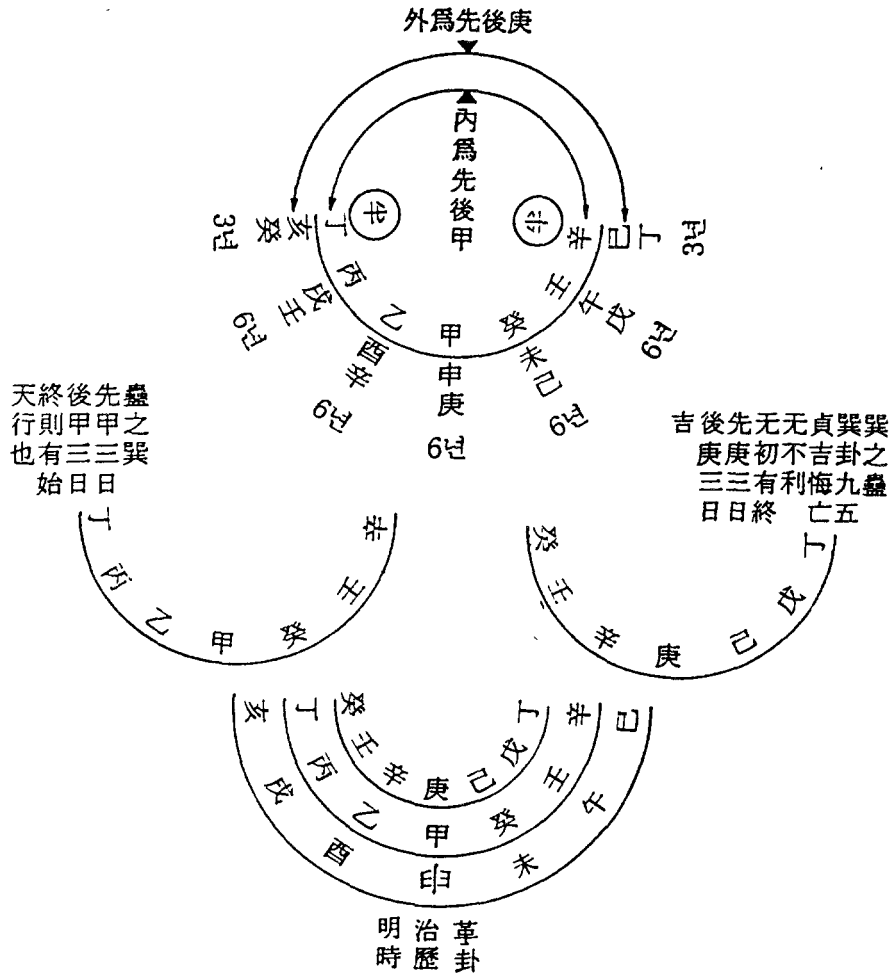
이를 인사에 기준하여 살피면 寅會半에서 午會半까지가 선천(4會 43,200年), 午會半에서 戌會半까지가 후천(4會 43,200年), 술회반으로부터 인회반까지가 휴지기(4會 43,200年)가 된다.

中天坎離一千二百紀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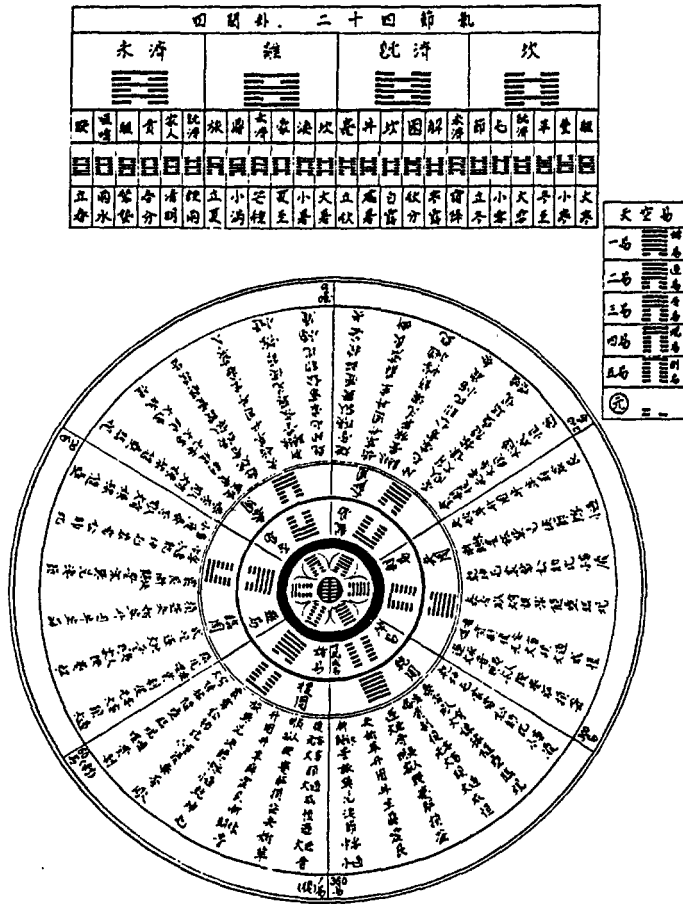
1元(129,600년)의 1/108인 1,200년은 1원의 體數에 해당하며, 이를 선후천의 과도기인 中天으로 처리하여 공제한다(1,200년은 人事에 해당하는 8會간의 天空度數에 해당). 주역 40번재의 解卦는 해당 1世(30년)로 보면 40世인 1,200년에 해당하니, 멧힌 마디를 풀듯 中天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損卦 육오 효사와 이를 도전한 益卦 육이 효사의 내용에 “或益之十朋之”라 하였으니, 春秋麟筆 다음해로 부터 2,420년 뒤인 단기 4,273년(庚辰)에 해당한다.

庚元 36 虛圖



선천은 甲이 통솔하고 후천은 庚이 주관한다. 경원은 천도를 고침을 이르니, 甲이 庚으로 바뀌는 가운데 36허도수가 생긴다. 地支를 불변으로 한 채 七日來復의 이치로써 庚甲變度を 행하면 36의 차이가 있으니, 甲子가 庚子가 되면 중간에 36의 허도수가 있는 이치이다. 위 그림에서 甲申이 庚申이 될 중심으로 한 것은, 「巽之蠱」의 申命行事와 先庚三日 後庚三日(巽·九五), 先甲三日 後甲三日(蠱卦 象) 등의 이치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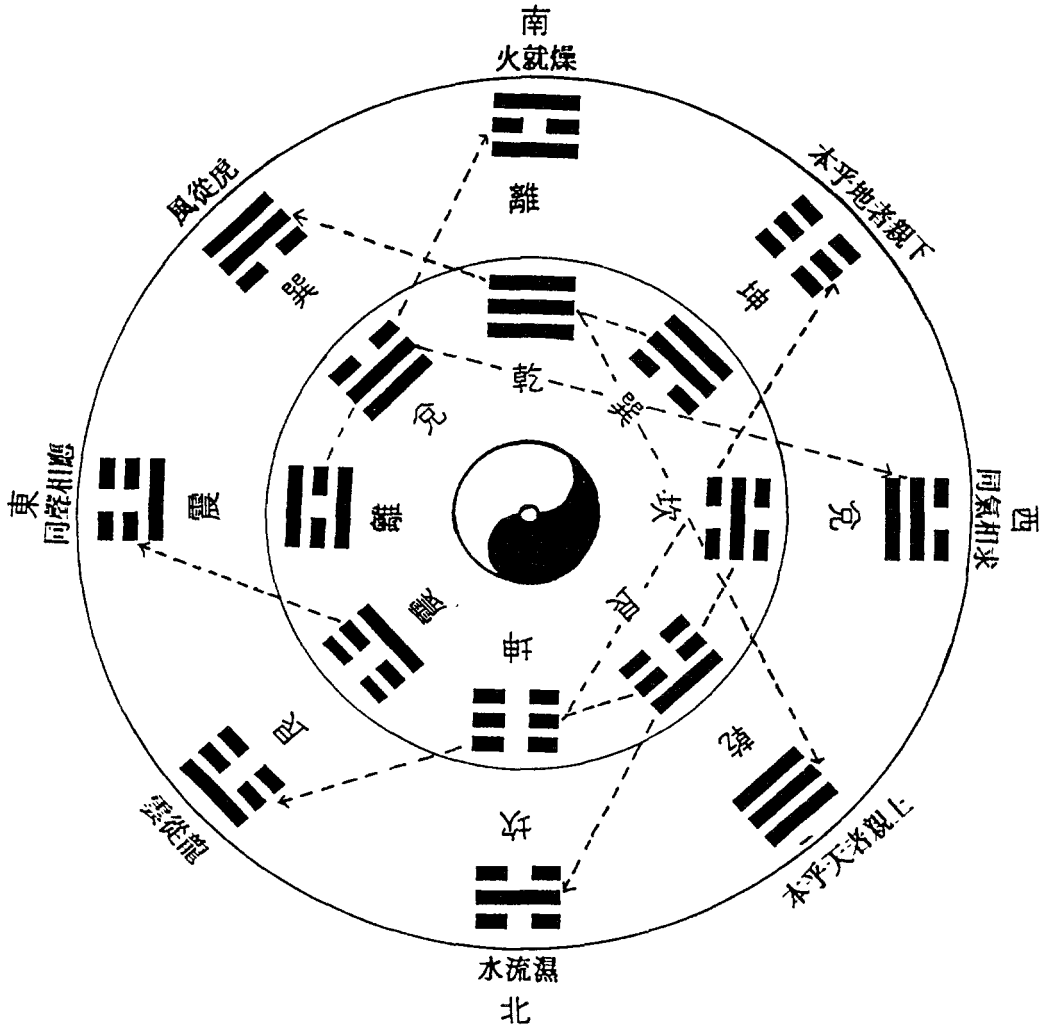
庚元歷原圖



也山선사는 선후천이 바뀌는 때를 맞이하여, 革卦 大象에 '治歷明時'라 이른대로 새로운 후천역법으로써 「경원력」을 창제하였다. 邵子の 「황극경세」는 건·곤·감·리가 체패인데 반해, 「경원력」은 상경과 하경의 마지막패인 감·리와 기제·미제를 체패로 하였다. 상경의 乾으로부터 大過는 28패로서 소양책수, 하경의 咸으로부터 小過는 32패로서 소음책수에 해당하며 총 60패(360효)로써 6周 360易(주천상수)을 표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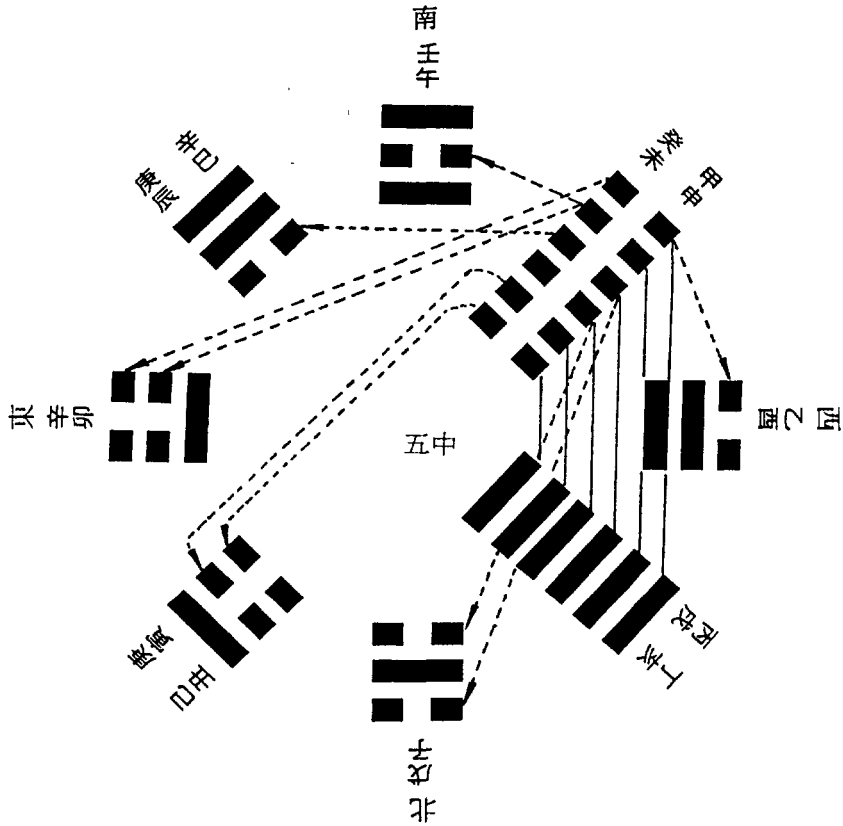
* 1년이 1紀, 12월이 6周, 360일이 360易이 되고, 나머지 5와 ¼일이 天空度數가 된다. 6주(360역)는 乾道가 주재하고, 天空易(5와 ¼易)은 坤道가 주관하며, 매 4년마다(申·子·辰해) 현행 양력의 윤일에 해당하는 「天空坤易」이 이루어져 1년이 366易이 된다.

乾 九 五 圖



「선천팔괘」가 「후천팔괘」로 바뀌는 이치로서, 공자가 乾文言傳 구오에 전한 내용을 也山선사가 독창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이다. 선후천변화의 이치를 乾九五에서 말씀한 것은 모든 괘와 효를 대표하는 것이 건괘 구오효이기 때문이며, 건구오가 변한 지괘 또한 火天大有(☲☰)로서 일중(中天)의 상이다.

得喪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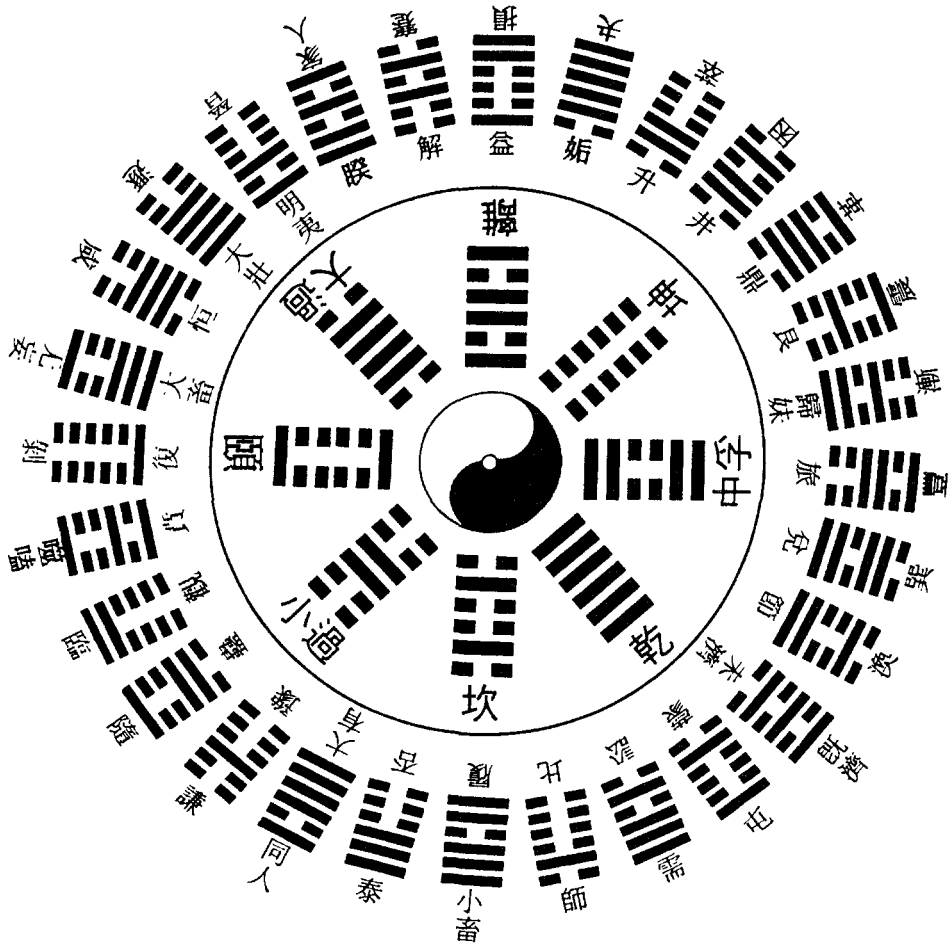


「문왕후천팔괘」 방위로써 보면 서남에 음괘(巽·離·坤·兌)가 더불고, 동북에 양괘(乾·坎·艮·震)가 짝하고 있다. 坤卦 象에 문왕이 '西南得朋 東北喪朋'이라고 한 것은, 음양이 교합하여 후천으로 변화함을 말하니, 陰으로 보면 서남방에서 '得朋'하고 동북방에서 '喪朋'하는 것이다. 日月의 운행에 있어 윤달을 두어 합치하는 이치도 이와 상응한다(蹇卦·解卦 참조).

한편 야산선사는 득상봉의 이치에 의거하여 선천을 마치고 후천으로 넘어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밝혔으니,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庚辰年(서기 1940)으로 부터 辛卯年(서기 1951)에 이르는 사이에 득상봉의 큰 변화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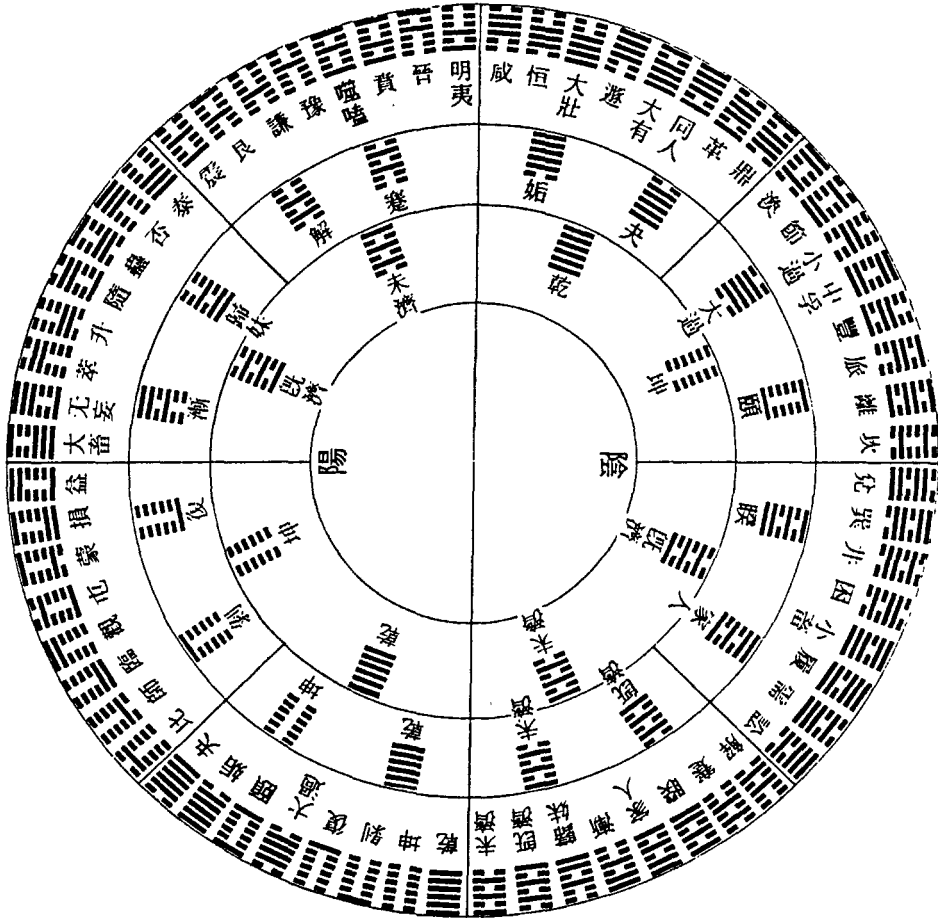
*남북상쟁은 크게 음양이 交戰(교합)하는 것으로, 西南진영(자유권)과 東北진영(공산권)이 混會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6 宮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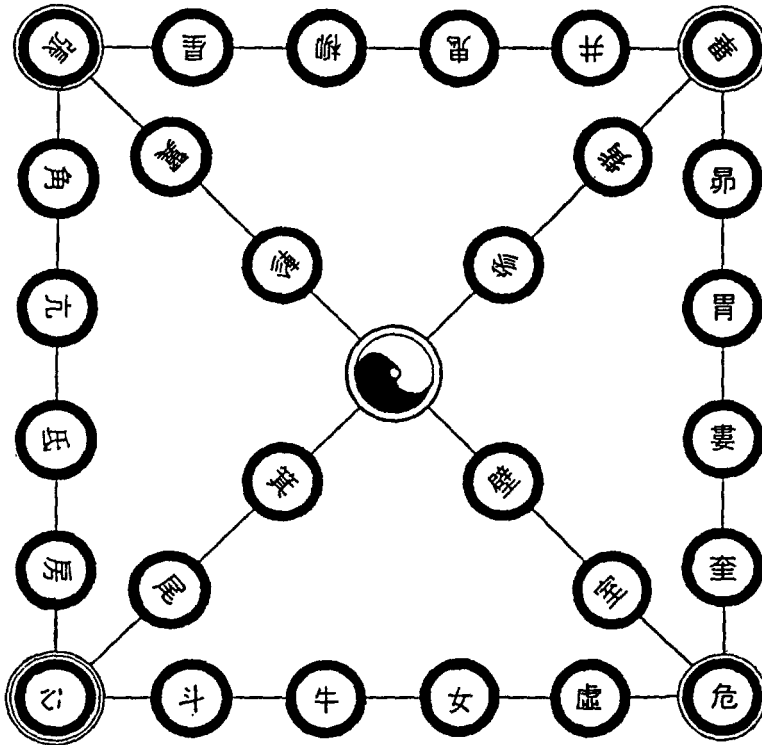
64괘는 모두 8괘(乾·坤·頤·大過·坎·離·中孚·小過)의 부도전괘와, 28괘(56괘는 도전을 이루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28괘)의 도전괘로서 나타난다. 上圖는 안으로 문왕후천팔괘에 의거하여 부도전괘를 배열하고(부도전괘의 내괘가 후천팔괘와 합치됨), 밖으로 주역의 순서에 따라 28개의 도전괘를 베풀어 놓았다.

互 卦 圓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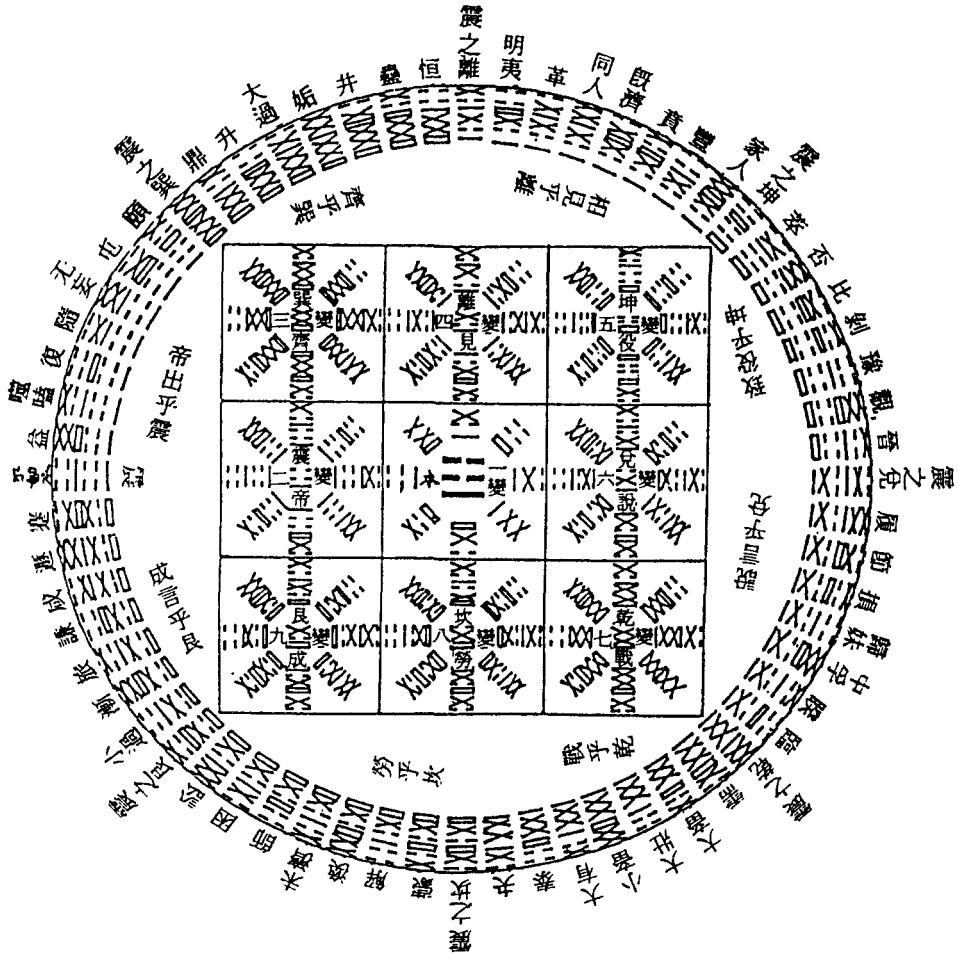
여섯효로 이루어진 괘에서 이·삼·사·오효를 中갓라하는데, 이 중효가 괘의 성격을 좌우한다. 64괘에서 중효로 이루어지는 호괘는 16괘이며, 이 16괘는 다시 乾·坤·既濟·未濟의 4괘로 귀결된다. 이는 64괘의 본체가 四象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양(☰)을 세번 반복하면 乾(☰)이고, 노음(☷)을 세번 반복하면 坤(☷)이 되며, 소음(☱)을 세번 반복하면 既濟(☵)이고, 소양(☴)을 세번 반복하면 未濟(☲)가 되니, 건·곤·기제·미제가 사상의 用으로써 주역을 통할하는 것이다. *제일 안쪽은 음양이 자리하고, 두번째 원은 乾·坤·既濟·未濟의 네 괘가 모든 괘의 체가 됨을, 세번째 원은 16괘가 64괘의 호괘가 됨을 나타내며, 도전 또는 배합괘의 경우는 그 호괘 역시 도전 또는 배합관계임이 보인다.

二十八宿와 擲柶板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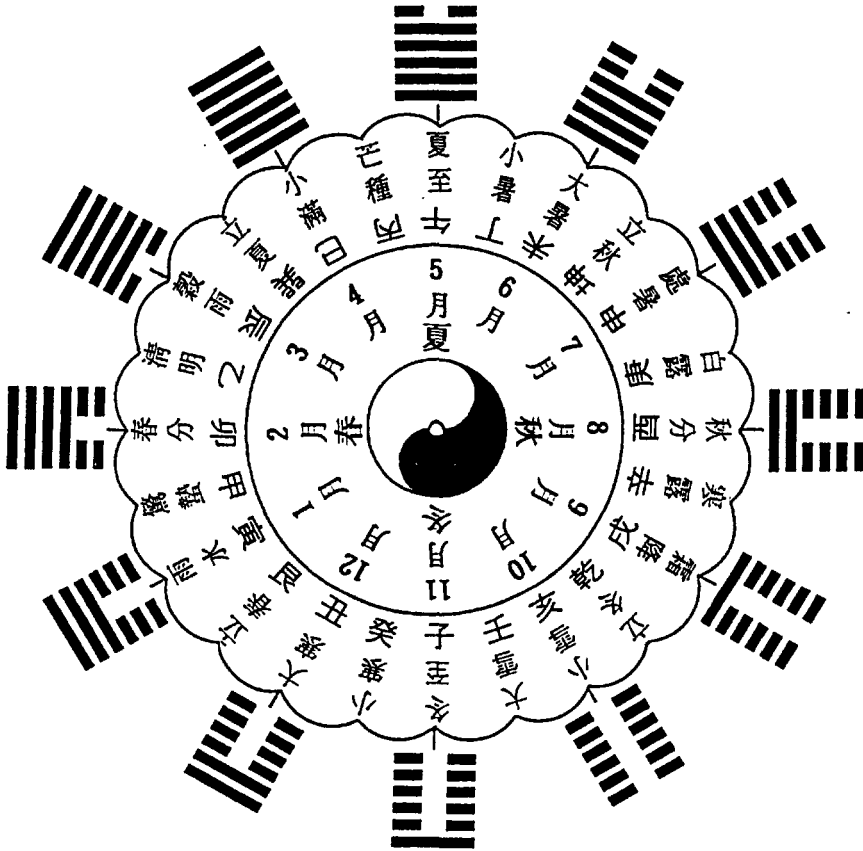
척사판도란 윷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십팔수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의 적도상에 분포되어 있는 28자리의 항성이다. 윷판은 휴대용 천문관측기구라고도 하듯이, 가운데 한점을 중심으로 28개의 점이 둘러진 것이 하늘의 28수와 일치한다. 위의 그림은 「척사판도」에 28수를 배당시키고 방향을 알기 쉽게 정방형으로 그린 것으로, 해가 바뀔때 노는 오락기구인 윷판에 하늘의 운행원리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震檀九變圖



說卦傳5장의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 說言乎兌 戰乎乾 勞乎坎 成言乎艮”의 변화가 九宮중 中宮(五中)이고, 이를 대성괘로 발전시킨 것이 8궁이며, 이를 동글게 배당시킨 것이 밖의 64괘원도이다. 안의 구궁에서 5中을 살펴보면, 震(☳)이 皇極으로 자리하고, 이어 동방으로 나아가간후 차례로 변하여 후천팔괘의 순서대로 8괘를 이룸을 말한다. 또 그 둘레의 8궁에서, 내괘는 각궁의 주인괘가 자리하고, 외괘는 그 주인괘가 변하여 후천팔괘의 순서로 자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구궁을 이룸을 나타냈다. 즉 震이 동방으로부터 나아가 아홉번 변하여 64괘로 상징되는 만물을 생성하는 동시에 다스리는 주체가 됨을 뜻한다. 밖의 원도는 8궁에서 이루어진 대성괘를 四震宮의 여덟괘부터 배열하고, 나머지 8궁의 괘를 차례로 배열한 것이다.

24節氣方位圖



위의 그림은 24절기·24방위와 1년 12월 및 12월괘를 방위에 배당한 것이다. 復卦는 양이 처음 나오는 때이므로 子月(음 11월)이며, 절기로는 동지에 해당한다. 臨卦는 양이 조금 더 자란 때이므로 丑月(음 12월)이며, 절기로는 大寒이다(동지와 대한사이에 소한이 있다). 泰卦는 양이 자라 음과 양이 반반이니 寅月(음 1월)이며, 절기로는 雨水다(우수와 대한사이에 立春이 있다). 이하 나머지 괘도 같은 방법으로 본다. 방위로는 12地支와 戊己를 뺀 10干, 그리고 문왕 팔괘방위상의 乾坤巽艮을 사용하여 24방위를 쓴다. * 복괘는 子方(북방)이고, 동남방은 巽方이라고 한다.

김지하 시인의 단군자손 발원문

민족의 뿌리요 족대이시며 우리의 힘과 지혜의 원천이신 국조단군이시여
 뿌리를 잊고 족대를 잃은 채 힘도 지혜도 없이 고통과 환란 중에 신음하며 방황하는 불
 초자손 김지하는 단기 4331년째 음력 개천절을 맞아 자애로우신 할아버지 앞에 다음과 같
 이 읍소(泣訴)하며 발원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허리가 잘리운 채 북쪽은 단말마의 세기적 굶
 주림으로 신음하고 있고 남쪽은 미증유의 경제파탄과 대량실업으로 국난을 만나 갈길을
 못찾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에 처해 북쪽은 비록 낡은 유물론과 편협한 인간중심주
 의, 그리고 폐쇄적인 군사국가의 한계안에서나마 제 뿌리와 족대를 찾아 민족전래의 인간
 적 순결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하는데 반면 남쪽에서는, 물론 세계화시대의 개방성이
 라는 미덕을 갖고 있긴 하나 그 술한 외래 사상을 창조적으로 통합할 민족주체적인 구심
 점을 완전히 잃어버린채 조야하고 아류적인 외래사상과 문화들이 도리어 주인행세를 하며
 판치는 중에 인간은 황폐해지고 사회질서는 문란해지며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정치는 형해
 화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만이 아닙니다. 요동하는 세계금융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이제 그
 극한에서 근본적 혁파를 요청받고 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인간영성은 고갈되어 폭력, 마약,
 정신질환과 피질이 창궐하고 끝없는 종교분쟁과 민족전쟁, 나라사이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집단아사가 속출하는 중에 지구생태계는 병들고 기상이변으로 유례없는 홍수와 가뭄, 해일
 과 지진이 휩쓸고 해수면은 상승하며 절기는 뒤틀리고 있습니다. 목하 서양중심의 현대문
 명은 쇠퇴·몰락하여 새로운 정신, 새로운 문화에 의한 새문명에의 갈증이 높아가고 있습
 니다. 가히 후천개벽입니다.

발원합니다.

우리가 황폐중에서 일어나 새인간으로 건뽀나고 국난중의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혁하며
 갈라진 민족을 주체적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민족사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와
 지구를 구출하여 우주적 평화를 이룩할 인류사적 우주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활로를
 오늘 도리어 우리의 뿌리요 족대이신 할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인류는 지금 신과 인간의 분리, 여러 신들의 분열, 문화의 혼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와 민족과 전인류와 천지만물의 근원이시며 대광명 ‘밝’이신 ‘한님’과의 일치를 통해 민
 족종교들의 변함없는 시발점인 신일합일(神人合一)을 이루어 자신과 사회와 천지에 널리
 이로운 새사람 즉, 홍익인간으로 거듭나 인간이상을 완성하고 나아가 세계 여러민족들의
 다기다양한 신관(神觀)을 ‘한’ 하느님 속에 귀일하여 인류의 정신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뿐만아니라 ‘큰 하나’요 ‘바탕’이요 ‘복판’이면서 ‘바르다’인 동시에 ‘날개’요 ‘작
 은 하나’인 ‘한’의 깊고 넓은 뜻으로부터 한민족의 사상적 문화적 ‘주체’를 세워 갈라진 민
 족의 정신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다른 여러 민족들의 독특한 문
 화들과 서로 공경과 존중으로 ‘공생’하되 근본적으로 화동하는 ‘중정(中正)’의 저 밝고 신령
 한 ‘한문화’를 오늘에 맞게 창조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민족과 인류는 지금 후천개벽기의 사회적 대혼란과 우주적 대변동에 부딪혀 이것을 해

명하고 극복할 수 있는 새철학, 새과학의 대안을 동북아시아의 전통사상과 함께 그 전통인 유불선을 애당초부터 아우르고 있는 한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새철학 새과학의 핵이 ‘한’사상과 천부경(天符經)에 압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19세기 후천개벽의 시발기에 원시반본(原始返本), 즉 상고(上古)로 되돌아감으로써 ‘한님’의 직접가르침에 의해 창조되고 유불선을 아우르며 풍류도를 재현한 수운(水雲), 일부(一夫), 증산(甞山) 세 성인(聖人)의 독특하고 광활한 사상도 결국은 모두 다 ‘한’ 사상과 ‘일석삼극(一析三極)’ ‘무계화삼(無匱化三)’ ‘대삼합(大三合)’ 등의 ‘일원삼원(一元三元)’, ‘삼원귀일(三元歸一)’과 무궁무진한 종시관(終始觀)을 포함하는 천부경 원리의 새로운 부활이요 전개라고 믿습니다. 천부경에 새로이 기초하여 이 세분 사상들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여러 큰 유불선 사상들을 선택적으로 수렴하는 동시에 서양의 심오하고 진취적인 철학과 과학사상등을 비판적으로 통합하는 대천부철학, 대천부과학이 완성되기를 발원합니다. 특히 김일부 선생의 정역(正易)은 이 과정에서 독특한 빛을 뿜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한인·한웅·단군의 조화(造化), 교화(教化), 치화(治化)의 삼화(三和)원리가 오묘하게 되살아나 저 아득한 옛 이상사회인 신시(神市)의 문화·경제·도덕의 풍속들과 고조선의 태양양명(太陽昂明)의 신령한 우주정치, 태양정치. ‘밖’정치가 오늘에 창조적으로 재현되기를 발원합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인간, 신인류의 출현을 외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양의 낡은 인간주의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신인간주의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육체적·감각적인 동시에 지적·정서적·사회적·과학적이며 또한 영적·신적·우주적인 삼극(三極)을 한몸(一身)에 통일한 이상인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 삶과 활동도 육체적으로 해방·승화되고 노동이 인간완성으로 연결되며 경제적인 복지를 건설하여 빈부의 차별을 넘어선 풍요한 사회를 성취하며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부하고 지적으로 세련된 문화생활과 사회적인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복락의 세상 그리고 과학의 발전·해방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영적으로 심화되고 신과의 일치통해 이상인간을 완성할 뿐 아니라 전지구적 우주적인 삶의 확장을 통해 인간만 아니라 동식물, 무기물까지도 사랑하고 해방·완성시키는 우주적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서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천부경의 마지막 구절, ‘사람안에서 하늘가 땅이 하나다(人中天地一)’ 속에 빛나게 압축되어 있고 삼일신고(三一神誥)안에 ‘정·명·성(精·命·性)의 원리로, 신선도 수련에서는 정·기·신(精·氣·神)의 이치로 집약되어 있으며 이같은 천지인 삼원귀일의 원리를 인간주체적으로 실현한 것이 바로 풍류도의 신선들, 천지화랑, 화랑, 조의선인들이었습니다.

최지원이 풍류의 내용을 심신수련과 도의 공부와 사회적 책무와 국가 봉사의 이치인 ‘포함삼교(包含三教)’이외에도 ‘접화군생(接化寤生)’이라하여 인간, 동식물, 무기물까지도 사귀어 감화·변화시킨다 한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 이치와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모든 이간, 한민족, 인류와 지구생태계, 그리고 저 넓은 우주가 학수고대 기다리는 신인간, 홍익인간이 이땅에서부터 출현하여 세계로 나아가 ‘한’과 ‘천부’의 이치로 세계를 감화·변화시키는 ‘이화세계(理化世界)’ 활동을 펼쳐 드디어 ‘한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현대는 청년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은 젊은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의 위기해결의 핵심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 난맥이요 지옥입니다. 고조선의 개천이념이자 현대, 한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모토가 새롭게 살아나야합니다.

기성교육계나 고명한 지식인들에게 그대로 맡겨둘 수 없는 급박하고 절박한 위기상황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광범위한 교육의병(敎育義兵)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이 민족과 전인류속에 빛나게 실현되기를 또한 간절히 발원합니다.

단군할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그 첫머리에 일어나야 할 것이 다름아니 새 율령(律呂)입니다. 우주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변화를 깊이 인식한 새로운 우주 음악과 춤과 시와 노래가 먼저 창조되어 사람과 만물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켜서 그에따라 새로운 예의(禮儀)와 도덕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정치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고조선과 삼한 삼국시대의 신도(神道)와 풍류가 그것입니다. 이 풍류가 이땅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불초자손이 새 율려운동을 시작한 하였습니다만 전혀 터무니없음을 통감합니다. 옛날엔 성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중생과 시민들이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피나는 수련과 내면의 깊은 명상을 통해 '한님'의 가르침으로 천지의 변화와 그 이치를 꿰뚫어야만 합니다. 부디 부디 친히 조림(照臨)하시어 밝은 가르침을 베풀어주시길 참으로 간절히 발원합니다.

이제 오늘 개천절로부터 시작해서 새삼스럽지만 할아버지를 대성인으로 축전하고 높이 숭상하는 운동, 뿌리찾기와 죽대세우기 운동을 우선 전개합니다.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두고 우상숭배 국수주의라 하여 핍박하고 폄하합니다. 이 주객전도의 난장판을 뚫고 깊은 확신과 드넓은 사명감을 지니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내 힘써 도와주시길 발원합니다.

발원은 참다운 귀의(歸依)와 실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짐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불초자손은 이 칠혹 어둠속으로부터 한목숨을 높이 들어 나와 민족과 전인류와 천지만물의 근원이시며 대광명이신 '한님'께 귀의합니다. 조화주 한인과 교화주 한웅과 치화주 단군의 삼위삼원(三位三元)에 귀의하며 일원삼극(一元三極)의 대철리인 천부경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주체적 실현인 천지인의 풍류도에 귀의합니다.

귀의와 함께 다음 세가지 항목의 실천을 오늘 이 자리에서 높으신 '한님'께 굳게 약속합니다.

첫째 술을 단호히 끊겠습니다. 또한 음란한 성적 호기심과 쾌락적인 망상, 그리고 고인의 진리를 피나는 노력없이 슬적 훔쳐 명예를 위해 써먹으려는 도적놈 심보를 결단코 끊어버리고 특히 담배는 오늘로부터 영영 끊어버리겠습니다.

둘째, 고대풍류도의 현대적 부활인 단학인(丹學人)의 한 사람으로서 그 수련과 과제와 사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마침내 성통공완(性通功完)하겠습니다.

셋째, '지옥'을 뜻하는 지금의 제가 만들어낸 이름 '지하'를 버리고 부모님이 주신 이름 '꽃 한송이' '영일(英一)'을 회복하여 차차 그 깊은 뜻을 깨우쳐 기어코 영롱한 꽃한송이를 제 삶과 이 민족 역사 위에 피우겠습니다.

저의 오늘이 있게 해주신 할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기 4331년 음력 개천절

불초자손

김지하(영일)앞드려 올림

통일기원 단군상을 건립하며

동방의 찬란한 정신 문화를 꽃 피웠던 동이 배달 겨레의 유구한 역사는 세계사속에서 실로 자랑스러운 것이다.

BC 7197년 중원 대륙 천산에 안파견 한인 [환인桓仁] 천제께서 하늘로부터 천부삼인을 받아 세상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셨으니 국호는 한국 [한국桓國] 이다.

한국 [한국] 의 마지막 임금이신 지위리 한인 [환인] 천제께서 BC 3898년 태자<거발한>에게 천부 삼인과 천부경을 하사하시니 이를 받아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천산에서 삼위 태백산 기슭으로 옮겨 신시를 세우고 국호를 배달이라 선포하였다.

18대 거불단 한웅 [환웅] 천황께서는 웅족의 왕녀를 황후로 맞아들여 태자를 낳으니 한배검(왕검) 단제 [단군] 이시다. 한배검께서는 38세 되던 BC 2333년에 수도를 아사달 [오늘날의 백두산 기슭] 로 옮기고 천부 삼인과 천부경을 이어받아 홍익인간 재세이화 정신으로 조선 [단군 조선=고조선] 을 세우셨다.

배달 시대 18대, 조선 시대 47대의 제왕들을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큰 뜻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음을 볼 때 모두 성인 중의 성인이심이 분명하며, 그 뜻을 이어받은 배달 겨레는 세계에서 찾기 힘든 유일한 문화 민족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로부터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약 2천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사실 6962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 사관에 동조하여 단제 [단군] 이전의 역사는 신화로 취급하여 성인이신 단제 [단군] 를 꿈의 자식으로 전락시키는 웃지못할 현실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통탄스럽지 아니한가?

이를 평소에 애통스럽게 여기고 평생을 민족 정신 광복에 전념해 오신 한문화운동 연합 총재 일지 이승헌님의 제안으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힘을 모아 분단 반세기를 넘긴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과 민족사 바로 세우기의 정신을 담아 전국에 360개의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한문화 운동 연합 회원들의 도움으로 여기에 통일기원 국조 단군상을 세운다.

이곳을 참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며 가슴 속에 홍익 인간 재세이화의 큰 정신을 간직하고, 겨레의 얼을 되새겨 밝고 강한 민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자.

이 동상은 신라 시대에 화가 술거가 그렸다고 추정되는 제 1대 한배검님의 영정을 원형으로 하여 조각가 이홍수가 제작하였다.

단기 4332 정월

한문화 운동 연합 총재 이지 이승현
통일 기원 단군상 건립 추진위원 일동